

불교신문(예상문제) 내용별 정리

I. 부처님 일대기

대한불교 조계종 부울경지부 흥법사 불교영어 아카데미
이두석(11기). 박종안(14기). 박혜숙(14기). 이한수(14기). 심지영(20기)

1. 들어가기

불교신문(조계종 기관지)에 연재된 문제에 대한 참고서적은 조계종 출판사에서 발간한 “부처님의 생애”이다.

이 책은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포교사 문제의 저본으로서 중요한 교재이니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참고로 이 책의 인명이나 지명은 물론 전문용어도 빠리어(고대 인도의 속어 즉 방언의 하나며, 방언은 산스크리트어에 대응하여 프라크리트어라고 한다)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산스크리트어(고대 인도의 표준어)와 함께 암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빠리어부터 익히기 바란다.

영어사전에서도 고유명사의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소리에 따라 사전에 표기되어 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란다.

현재 인도는 국가의 영역이 넓은 관계로 하나의 공통된 공용어는 없으며, 각 주마다 여러 개의 공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8대성지 중 네팔에 소재한 룸비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지(7대성지)의 주(州)에서는 힌디어와 영어가 공용어에 포함되어 있다.

힌디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된 말이며, 문자는 데바나가리 문자를 사용한다. 따라서 인도 내의 부처님의 성지에 대해서는 산스크리트를 아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2. 문제의 편집 기준

불교신문에 무작위로 연재된 문제를 먼저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제를 먼저 배열한 후 이어서 부처님의 생애의 전생과 출생에서부터 사라쌍수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기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편집한 것이니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암기를 하기 바란다.

3. 고유명사에 대한 표기문제

빠리어와 산스크리트 발음은 “한국불교학회”에서 발표한 발음표기에 따라서 표기할 것이며, 불교신문에 연재된 문제에서 잘못된 표기는 수정해서 수록할 것이다.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빠리어 다음에 괄호를 쳐서, 산스크리트어[S]와 중국어[C] 순으로 표기를 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웨데히(와이데이[S]; 위제희[C])

그러나 인명과 지명 중에 영어권에 편입되어 영어사전에 수록된 고유명사는 영어식으로도 표기할 것이다. 예: 싯다르타 Siddhattha[P], Siddāhrtha[S], Siddhartha[E]

영어사전의 단어들은 대부분 빠리어가 아닌 산스크리트어의 발음에 특수표기를 생략하여 표기한다. 구체적 발음표기법은 “부처님의 생애”의 차례 뒷부분을 참고하시고, 빠리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차이점과 표기법을 간단하게 알려면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의 p.78(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부처님 당시의 인도의 역사적 상황

1. 불교 발생 이전의 인도 사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기원전 1500년 경 아리안 족이 인도에 침입하여 원주민을 정복하였다.
- ② 아리아인들은 작은 촌락을 이루고 사제를 중심으로 한 씨족공동체 농촌사회를 형성하였다.
- ③ 아리아인들은 바라문교라는 종교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분제도인 사성제도를 형성하였다.
- ④ 기원전 7세기경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신흥세력이 등장하면서 바라문 계급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해설: 기원전 6세기를 전후로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왕족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1-1 At the time of the Buddha, Indian society was ruled by a caste system.

Which caste did the Buddha belong to?

부처님 재세 시에 인도사회는 카스트제도에 의해 지배되었다.

붓다는 어느 계급에 속했는가?

- (1) Ks(h)atriya (2) Shudra (3) Vaisha (4) Brahman

2. 다음은 부처님 당시의 사회사상을 설명한 것이다. 타당한 것은?

- ① 단멸론자(斷滅論者)들은 고행을 통해 우주의 주재자인 브라만과 자신을 합일시키기를 주장하였다.
- ② 상주론자(常住論者)들은 윤회를 부정하고 한 번의 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상주론자들은 인과를 부정하고 현실의 쾌락을 즐기기를 주장하였다.
- ④ 부처님은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극단을 벗어나 중도의 길을 제시하였다.

해설: 고타중도란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극단을, 단상중도란 단멸론과 상주론이라는 극단을, 유무중도란 세계와 내세의 유무라는 극단을 떠난 길을 말한다.

3. 부처님 당시 인도의 육사외도와 그의 사상이 다른 것은?

- ① 뿌라나 깟사빠 - 도덕부정론자 ② 아지따 께사깁발라 - 유심론자
- ③ 막칼리 고살라 - 운명론자 ④ 산자야 벨랏티뻬따 - 회의론자

해답: 부처님의 생애, 사문들의 도시 라자가하(p.80)

육사외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시험문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자마다 그 평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② 번의 아지따 께삼발라는 유심론자가 아닌 유물론자로서 감각적 쾌락이 최고라고 주장하였다. 육사외도는 위의 4가지 외에 (1) 빠꾸다갓짜나 - 불멸론자, (2) 니간타 나따뻬따(자이나교의 창시자)-고행주의가 있다

4. 불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현재에도 인도에 존속하면서 인도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종교는 무엇인가?

답: 자이나교

5. 고대 인도의 16대국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었던 두 나라의 이름을 쓰시오.

답: 코살라, 마가다

해설: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국은 코살라국의 속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중에 코살라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다.

6.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을 찾으세요.

- ① 부처님은 마가다라는 대국(大國)의 왕자로 태어났다.
- ②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전쟁이 전혀 없이 평화로운 시기였다.
- ③ 부처님 시대는 가뭄과 기근이 전혀 없이 풍요로웠던 시기였다.
- ④ 부처님이 나고 자란 나라, 카필라국은 패망하고 만다.

7. 부처님께서 나고 자란 카필라국은 어느 나라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는가?

- ① 코살라국 ② 양가국 ③ 밋지국 ④ 마가다국

2. 부처님의 탄생 이전

8.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서 수메다 수행자에게 수기(受記)¹⁾를 주신 부처님은 누구인가?

- ① 위뻘시(Vipassi) 부처님 ② 갓사빠(Kassapa) 부처님
- ③ 디뵤까라(Dipamkara, 연등) 부처님 ④ 뱃뵤야(Metteyya, 미륵) 부처님

해설: 디뵤까라는 제화갈라라고 음역하거나 연등불이라고 의역하기도 하는데, 불교문화에서 석가삼존의 양식 중 하나이다. 범어사 대웅전의 석가삼존은 좌보처에 제화갈라, 우보처에 미륵불이 협시하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연등불에게 바치는 공양물로서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고기와 향 ② 밥과 고기 ③ 꽃과 고기 ④ 꽃과 향

10. 연등불 일화에 나오는 계송의 한 부분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허공에 던져진 (㉠)가 땅으로 떨어지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가 포효하듯이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 ① 사과 - 코끼리 ② 흙덩이 - 코끼리 ③ 흙덩이 - 사자 ④ 사과 - 사자

해설: 부처님의 생애, 이 땅에 오시기까지(p.21)에 나오는 내용이다.

11.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 가운데, 연등불(Dipamkara)과 관련이 있는 인물을 고르세요.

- ① 아난다 ② 수메다 ③ 사리불 ④ 목건련

해설: 연등불 부처님과 선혜(善慧)라는 이름의 선인(仙人)에 대한 이야기다.

12. 다음은 수행자 수메다가 디뵤까라(Dipamkara, 燃燈)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장면이다.

1)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은 수메다가 마가다국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석가모니불이 된 후 미륵에게 수기를 한다. 그래서 연등불과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을 수기삼불(授記三佛), 수기삼존(授記三尊)이라 하고, 사찰의 대웅전 등에 많이 모시는데 흔히 삼세불(三世佛)이라 한다.

주의할 것은 과거불과 미래불은 초기경전인 아함경과 니까야에 등장하며, 미륵(현재는 미륵보살) 또한 미래불로서 초기경전 즉 ① 잡야함 ‘전륜성왕수행경’과 ③ 빨리 장부(Digha Nikaya) 26, ‘전륜성왕사자후경’에 나오는 인물이지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문수,보현,관음 등의 보살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백겁의 세월이 흐른 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여래(如來).무소착(無所着).지진(至眞).등정각(等正覺)이 되어 ()라 불릴 것이다.”

- ① 베사부(Vessabhu) ② 까꾸산다(Kakusandha)
③ 사까무니(Sakyamuni) ④ 꼬나가마나(Kona-gamana)

13. 부처님이 지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머물렀던 곳으로, 이곳의 내원궁은 장래 부처가 될 보살²⁾의 주거지이며 육계의 6천 가운데 제4천이다. 이곳은 어디인가?

- ① 도솔천(兜率天) ② 사천왕천(四天王天) ③ 도리천(?利天) ④ 야마천(夜摩天)

해설:

- (1) 도솔천(Tusita)은 부처가 되기 직전의 일생보처보살이 머무는 곳이며, 지금은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이며, 도솔천 내원궁과 외원궁 중 내원궁은 미륵보살의 정토이다.
(2) 도리천(Trayas-trimsa)은 33천이라고도 하는데, 도리는 33을 뜻하는 trayas(3) + trimsa(30)를 음역한 말이다. 수미산 꼭대기에 위치하며, 도리천에는 중앙에 제석천(=인드라신)이 머무는 선견천이 있다. 석가모니불의 어머니 마야부인이 다시 태어난 곳이다.
(3) 불교의 우주론에 대해서는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 pp.166~177의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13-1 The following is a story about two Bodhisattvas. What are their names in turn?

다음은 두 보살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의 이름은 차례대로 무엇인가?

[1] Sakyamuni Buddha had been residing in Tusita Heaven in the previous life before he was born in this world.

석가모니불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서 계셨다.

[2] He will succeed S(h)akyamuni as the Buddha of the future and he will appear in this world 5670 million years after S(h)akyamuni's parinirvana.

그는 미래불로서 석가모니 뒤를 이을 것이며 그는 붓다의 입멸 후 56억 7천만년 뒤에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 (1) Jotipala, Maitreya(pali: Metteya) (2) Sumedha, Maitreya (3) Jotipala, Vipassin (4) Dharmakara, Maitreya

해설: Dharmakara(법장)는 "나중에 아미타불이 된 보살의 이름(the name of the bodhisattva who later became the Buddha Amitabha)"이며 법장비구(bhiksu Dharmakara)라고도 불린다.

14.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한 일과 공덕을 이야기로 구성한 경전의 명칭은?

2) 초기경전에서 보살이라는 명칭은 (1) 석가모니불이 수기를 받은 후부터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성불하기 이전과 (2) 미래에 출현할 미륵보살을 가리키는 말로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증일아함경 권4에 ‘하냐야특’ 장자의 보시행에 대해 보살심이라고 칭찬하는 내용에서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넓은 의미의 보살(대승의 불과를 얻기 위해 성불을 위해 발심과 수행을 하는 자는 모두 보살)개념에 대한 단초를 엿 볼 수 있다. 미륵보살은 초기경전에 이미 등장하는 인물이며, 초기경전에서도 부처가 되기로 수기를 받은 존재는 그 수행이 바라밀수행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단 바라밀에 대해 불전마다 그 종류가 6바라밀, 7바라밀, 10바라밀 등으로 다르게 언급되지만 대승불교에서 그 목적이 성불이니만큼 당연히 그 수행법도 초기경전에 나오는 바라밀수행을 강조하게 된다.

답: 자타까(Jataka)

3. 부처님의 탄생

15. 부처님께서 우주의 존재원리를 깨닫고, 대자유의 시대를 연 날이며, 사실상 불교가 시작된 역사적인 날은?

- ① 음력 4월8일 부처님탄신일 ② 음력 2월8일 출가일
③ 음력 12월8일 성도일 ④ 음력 2월15일 열반일

16.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불교의 4대 명절과 그 날짜를 쓰시오.

답: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8일), 출가제일(음력 2월8일),
성도제일(음력 12월8일), 열반제일(음력 2월15일)

17. 불교의 4대 성지 중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신 장소는?

- ① 룸비니 동산 ② 붓다가야 ③ 녹야원 ④ 쿠시나가라

해설: 불교 4대명절과 4대 성지를 비교하면 4대명절 중 출가제일은 4대성지와 관련이 없다.

물론 카필라바스투의 성이나 궁전을 성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녹야원은 초전법륜의 장소로서 4대성지에 포함되지만, 4대명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초전법륜일을 정하여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는 날로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7-1 Write down the four holy places of Buddhism.

불교의 사대성지(四大聖地)를 기술하라.

답: 1. Lumbini 2. Buddhagaya 3. Sarnath 4. Kusinagara

18. 다음 중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Sakyamuni)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부처님의 출가 전 이름은 석가모니이다.
② 석가는 성이고 모니는 이름이다.
③ 모니는 성이고 석가는 이름이다.
④ 석가모니란 석가족 출신의 성자란 뜻이다.

19.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으로서 맞게 짝지어진 항목을 고르세요.

- ① 수반왕 - 소라 왕비 ② 정반왕 - 마야 왕비
③ 곡반왕 - 마야 왕비 ④ 정반왕 - 소다 왕비

20. 싯다르타 태자는 어느 나무 아래서 태어났는가?

무우수(無憂樹)라고 번역하여 부르기도 하는 나무 이름은 무엇인가요?

- ① 사리 나무 ② 아쇼카 나무 ③ 사라 나무 ④ 반얀 나무

해설: 소까(soka[P] 또는 쇼까(śoka[S])란 슬픔(grief, sorrow)이라는 뜻이며, soka 앞의 a는 자음 앞에 붙는 부정접두어이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무우(無憂)라고 의역하면서 나무 수(樹)를 붙여서 무우수라고 번역하였다.

21. 부처님의 생애 중 주요 테마와 관련된 나무가 있다.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탄생-아소까나무(무우수; 無憂樹) ② 성도-뽕팔라나무(보리수; 菩提樹)
③ 항마-잠부나무(염부수; 閻浮樹) ④ 열반-살라나무(사라수; 沙羅樹)

22. 싯달타 태자는 탄생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탄생계를 외쳤다.

이때 하신 탄생계송을 쓰시오.

답: 전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23.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며 한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사자후를 하셨다. 이때 하신 탄생 계송을 쓰시오.

답: 전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24.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외치셨던 탄생계송의 의미를 쓰시오.

답: 전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25.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왕비는 일직 세상을 떠나셨다.

태자를 낳은 지 얼마 만에 돌아가셨는가?

- ① 3일 ② 7일 ③ 21일 ④ 49일

해설: 인도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에 해당된다. 초기경전에 보면 7일 만에 마야부인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의 정해진 법칙으로서 과거불 또한 그 어머니가 7일만에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26.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마야부인은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② 숲도다나왕은 마야부인의 출산을 돕기 위해 룸비니 동산에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다.
③ 마야부인은 룸비니 동산에서 아소까 나무(無憂樹) 가지를 잡고 왕자를 순산하였다.
④ 싯달타 태자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연꽃이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졌다.

28. 마야부인이 부처님을 낳은 지 칠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답: 도리천

4. 싯달타 태자의 청소년 시절

28. 싯달타 태자의 청소년기 생활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숲도다나왕과 마하빠자빠띠의 보살핌 아래 갖가지 학문과 무예를 익혀 전륜성왕의 길을 걸 어갔다.
② 농경제에 참석하여 약육강식의 현실세계에 충격을 받고 강인한 군주가 될 것을 결심하였 다.
③ 태자의 나이 19세가 되던 해에 끌리야 출신의 외동딸 야소다라를 태자비로 맞이했다.
④ 숲도다나왕은 태자와 태자비를 위해 계절에 맞는 세 개의 궁전을 지어 머물게 하였다.

29. 싯달타 태자가 청소년기 생활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무예를 익히며 모자람 없이 자랐다.
- ② 계절에 따라 삼시전을 지어 호화로운 생활 속에 성장하였다.
- ③ 정반왕은 태자의 도성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견문을 넓히게 하였다.
- ④ '출가하여 수행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으로 행동에 제약이 따랐다.

30. 다음은 싯달타 태자 나이 12세 되던 해, 부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석하였을 때의 일이다. 당시 태자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아, 약육강식의 세상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세상을 고통 속에서 구원할까?
- ②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야!
- ③ 약한 자가 잡아먹히게 된 것은 본인이 게을러서 받는 당연한 인과응보야!
- ④ 아,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차라리 멀리 떠나버릴까?

31. 싯달타 태자가 처음으로 존재의 고통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되었던 축제로서 해마다 열렸던 행사의 이름을 고르세요.

- ① 농경제 ② 쿨부멜라 ③ 소리제 ④ 디파발리

해설: 농경제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시작할 시점에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이다.³⁾

5. 싯달타 태자의 성년기

31. 싯달타 태자는 결혼을 했다. 배우자였던 공주의 이름을 고르세요.

- ① 콜리야 ② 수미다라 ③ 룸비니 ④ 야쇼다라

32. 성년이 된 싯달타 태자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 부왕 몰래 성문 밖으로 유람을 나섰는데, 이때 북문에서 만난 사람은?

- ① 늙은 사람 ② 병든 사람 ③ 죽은 사람 ④ 출가 수행자

해설: 동문에서 만난 사람→늙은 사람, 남문→병든 사람, 서문→죽은 사람을 보았다.

인도에서는 방향을 이야기 할 때 동남서북의 순서로 말한다. 그래서 동문에서 노인 즉 늙는 것, 남문에서 병자, 서문에서 죽음, 북문에서는 생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사문을 만나는 것이다.

33. 성년이 된 싯달타 태자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 부왕 몰래 성문 밖으로 유

3) 쿰브 멜라(Kumbh Mela)는 힌두교도들이 성지 네 곳을 순회하면서 12년을 주기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42일간 열리는 인도 최대의 축제이며, 쿰브는 '주전자.항아리', 멜라는 '모임.집회'를 뜻한다. 인도 전설에 의하면 비슈누신의 항아리에 담긴 감로수 4방울이 갠지스, 고다바리강, 시프라강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신성한 강물에 목욕하면 죄업을 소멸된다고 생각한다.

디파발리(Deepavali)는 힌두교의 가장 큰 축제로서 '빛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디파발리는 '빛의 향연, 불빛의 대열'이라고도 불린다. 영어로는 light festival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힌두교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며, 집안에 초와 램프를 켜서 집안을 장식하고 사원에서 예배를 올린다.

람을 나섰는데, 이때 비로소 왕궁의 영화와 권세, 향락과 사치 그리고 어떤 학문과 종교에서도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했던 태자는 그 길을 찾아 사유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자로)

답: 사문유관

34. 싯다르타 태자가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서 경험하고 터득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는 사실 ② 늙어가는 것이 괴롭다는 사실
③ 병들지 말아야겠다는 사실 ④ 존재의 고통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35. 부처님의 출가 동기로 전해지고 있는 사문유관(四門遊觀; the four sights)⁴⁾의 내용 중 태자가 왕궁의 복문을 벗어날 무렵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 ① 병든 자 ② 늙은 자 ③ 죽은 자 ④ 수행자

36.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직전에 탄생한 태자의 아들 이름은?

- ① 라훌라 ② 난다 ③ 찬나 ④ 우다이

37. 석가모니는 출가 전에 결혼을 했기에 아들 하나가 있었다. 나중에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던 아들의 이름을 고르세요.

- ① 가섭파 ② 아난 ③ 아난다 ④ 라훌라

해답: 라훌라는 장애 혹은 속박이란 뜻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인도의 신화를 보면 불사약을 먹은 아수라왕의 이름이다.

6. 출가와 수행

38. 석가모니 당시에 재가 생활은 출가 생활과 대비하여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

합당한 것을 고르세요.

- ① 욕망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삶 ② 자유 없고 욕망에 찌들어 사는 고통의 삶
③ 어디든지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삶 ④ 어디든지 맘 편히 다닐 수 없는 구속의 삶

39. 출가를 만류하는 부왕에게 싯다타 태자가 출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소원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영원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② 영원히 젊음을 누리며 늙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③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④ 영원히 좋은 가문에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40.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의 길을 떠났을 때, 몇 살이었나요?

- ① 29세 ② 19세 ③ 49세 ④ 39세

4) the four sights(Donald mitchell) / the four passing sights of the four gates(박영희 번역) / the four distressing observations seen through the four gates(박종매 번역)

해설: 29세 출가하여 6년 수행 끝에 35세에 성도하셨다.

41. 싯달타 태자가 출가한 시기는?

- ① 19세 되던 해 음력 12월 8일
- ② 29세 되던 해 음력 2월 8일
- ③ 35세 되던 해 음력 12월 8일(성도일, 출가한지 6년 만에 성도)
- ④ 45세 되던 해 음력 2월 8일

42. 싯달타 태자의 출가와 관련된 설명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항목을 고르세요.

- ① 아무도 몰래 출가의 길을 떠났다. ② 마부가 출가의 길에 동행했다.
- ③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축복했다. ④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출가했다.

43. 출가한 뒤 싯달타의 행보에 대해 잘못 서술한 항목을 고르세요.

- ① 야쇼다라는 남편의 출가 소식을 듣자마자 출가의 길을 떠났다.
- ② 야쇼다라는 마부 찬나로부터 남편의 출가소식을 들었다.
- ③ 싯다르타는 야쇼다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
- ④ 찬나는 태자의 보석 장신구를 야쇼다라에게 전해 주었다.

해설: 정반왕이 돌아가신 뒤 마하빠자빠띠 왕비와 500명의 여인들이 출가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야쇼다라 등도 출가하였다고 한다.

44. 싯달타 태자가 출가하여 마가다국 라자가하(왕사성)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태자를 찾아가 자신이 다스리는 마가다국의 왕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으나 태자가 이 제안을 거절하자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가장 먼저 라자가하를 찾아와 자신을 제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답: 빔비사라왕

45. 부처님 당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상가로 웨다의 전통과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사상을 주장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답: 사문

46. 싯달타 태자의 출가 이후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왕위의 자리를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야쇼다라와 아들 라훌라는 데리고 출가하였다.
- ② 당시 유명한 수도자들을 찾아 수행을 배웠지만 결국은 그들 곁을 떠나 독자적인 수행을 시작하였다.
- ③ 처음부터 당시 다른 수행자들처럼 고행의 길에 들어섰다.
- ④ 끝까지 고행을 함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생활의 향상을 가져와 만족한 생활을 하였다.

47. 싯달타 태자가 출가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새로운 왕자가 탄생한 후 야쇼다라와 함께 출가하였다.
- ② 태자를 시종들던 찬나의 인도로 깐타까를 타고 출가하였다.

- ③ 태자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숲 속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 ④ 숲도나나왕은 국사와 대신들을 불러 태자를 뒤쫓도록 했다.

48. 싯닷타 태자의 출가 동기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왕궁의 화려한 생활에 환멸을 느껴서
- ② 천상에 태어날 복덕을 짓기 위해서
- ③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 ④ 당시의 풍습에 따라 수행을 경험하기 위해서

49. 싯다르타 태자가 했던 말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나는 (㉠)하는 생사의 세계에서 좋은 과보를 바라고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속박을 벗어나 (㉡)을 얻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 ① 순회 - 발견 ② 윤회 - 해탈 ③ 윤회 - 구속 ④ 순회 - 해탈

50. 싯닷타 태자의 출가 이후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다섯 명의 신하들과 함께 스승을 찾아 웨살리로 향하였다.
- ② 먼저 물과 불, 해와 달 등을 숭배하는 고행자 박가와를 찾았다.
- ③ 그 후 당시 요가의 대가인 선정주의자 알라라칼라마를 찾았다.
- ④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의 경지에 올라 모든 고뇌와 탐착을 떨쳐 버렸다.

50-1. An ascetic refers to a practitioner who mortify one's body because of one's religious belief. Who was an ascetic who the prince Siddharta first met after his renunciation⁵⁾?

고행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학대하는 사람을 뜻한다. 싯다르타 왕자가 출가 후 처음 만난 고행자는 누구인가?

- (1) Bhaggava(Bhargava[S]) (2) Bhagavant(Bhagavat
- (3) Alara Kalama(Arada Kalama[S]) (4) Uddaka Ramaputta(Udraka Ramaputra[S])

해설: 고행자의 이름인 박가와(Bhaggava[P]; 바르가와Bhargava[S])와 세존(世尊)을 가리키는 바가완뜨(Bhagavant[P]; 바가와뜨Bhagavat)는 구분해야 한다.

한편 아라라 칼라마[Alara Kalama(P); 아라다 칼라마Arada Kalama(S)]는 무소유처정을, 웃다까 라마뿌따(Uddaka Ramaputta[P]; 우드라까 라마뿌뜨라Udraka Ramaputra[S])는 비상비비상처정을 가르쳤다.⁶⁾

5) 1.ascetic n.고행자 / a.고행의

***고행(ascetic practice / asceticism / self-mortification/ (religious) penance)

2. refer (to) 나타내다, 뜻하다.

3. mortify vt.고행정화하다, 극복하다, 억제하다 vi 고행하다.

4. renounce 포기하다, 와의 관계를 끊다 **renunciation 출가=leaving home

***출가하다 leave home / become a monk / enter the Buddha-sangha / enter the priesthood / renounce the world[the secular] / escape from the mundane world(속계).

6) 불교의 선정단계를 넓게 나누어 9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것을 9차제정이라고 한다. 9차제정은 4단계

51. 싯달타 태자의 수행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태자는 선정주의자(禪定主義者)인 웃다까 라마뻏따가 제시하는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을 최고의 경지로 인정하고 이 경지를 달성하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았다.
- ② 태자는 처음부터 철저한 고행주의자였으며, 설산에서 행한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의 결과로 마침내 성도를 이루었다.
- ③ 싯달타 태자는 오직 선정수행에만 몰입했으며 처음부터 고행주의 전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 ④ 태자는 극심한 금식을 비롯해 오랫동안 고행에 몰입했으나 그것이 성도(成道)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고행을 포기했다.

52. 출가한 싯다르타 태자의 수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을 고르세요.

- ① 처음부터 고행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 ② 고행하는 수행자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 ③ 고행하는 수행자들의 목적을 듣고서 비난했다.
- ④ 온갖 고행 수행법을 따라 해 보았다.

해설: 부처님은 먼저 선정수행을 하셨고, 후에 고행을 하셨으나 둘 다 깨달음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53. 수행자 고탓마가 당시 출가 사문이나 인도 사람들이 했던 고행을 포기한 이유로 타당한 것은?

- ① 고행을 통해 전혀 깨달은 바가 없었으므로
- ② 고행을 통해 얻은 신비하고도 초인간적인 힘이 두려워서
- ③ 당시 사상이나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극단적인 수행법을 찾기 위해서
- ④ 육체를 학대하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54. 수행자 고탓마에게 네란자라강 근처에서 우유죽을 공양한 사람은?

- ① 아쇼다라 부인 ②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
- ③ 우루벨라의 수자타 소녀 ④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7. 성도(成道) Enlightenment

55. 다음 중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장소는?

- ① 룸비니동산 ② 와라나시 ③ 보드가야 ④ 꾸시나라

해설: 부처님의 성도지는 붓다가야이며, 본래 가야라고 했으나 붓다의 성조를 기념하여 붓다가야라고 하였으며, 현재는 보드가야라고 부른다. 싯달타는 고행을 그만 두고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 뽕뽕라나무 밑에서 명상에 들어가려 할 때 솿티야(Sotthiya[P]; 스와스띠까svastika[S])가 바친 풀을 자리에 깔고 마지막 정진에 들어갔다.⁷⁾

의 선정 즉 초선정에서 4선정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멸진정(=상수멸정)을 더한 것이다.

7) 솿티야는 그 뜻이 길상, 행운, 축복, 가피라는 뜻이며, 그가 바친 풀을 ‘불소행찬’에서 길상초라고 한

56. 다음은 수행자 고타마가 마왕 파순(papiyas)의 항복을 받은 후에 하신 말씀이다.

이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세상에서 무기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나 나는 중생을 평등하게 여기는 까닭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등한 행과 인자한 마음으로 악마를 물리쳤나니.”

① 성적인 쾌락 등의 육체적인 욕망, 즉 색욕을 물리쳤다.

② 마음속의 온갖 번뇌, 즉 욕망, 혐오 등을 물리쳤다.

③ 전륜성왕의 자리 등 권력의 욕망에서 벗어났다.

④ 깨달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

해설: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벗어났다라고 표현이 나올 것 같다.

57. 고타마의 수행을 방해한 마라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리가 먼 것은?

① 욕망과 혐오하는 마음을 물리쳤다. ② 깨달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

③ 나태와 공포, 의혹으로부터 벗어났다. ④ 명예와 권력의 욕망에서 벗어났다.

58.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세에 성도하실 때에 수인(手印)으로 마왕 파순의 항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수행을 지신(地神)에게 증명해 보라고 말하면서 지은 수인은?

① 향마촉지인 ② 선정인 ③ 전법륜인 ④ 지권인

59. 수행자 고타마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성도할 때 마라에게 항복받으신 장면을 나타낸 수인(手印)은?

① 결가부좌 상태로 참선에 든 모양

② 오른손으로 왼손의 둘째 손가락 부분을 감싸는 모양

③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킨 모양

④ 왼손은 결가부좌한 발 위에, 오른손은 땅을 가리킨 모양

60.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은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호칭 열 가지인 여래십호(如來十號)란 무엇인지 쓰시오.

답: 여래(如來), 응공(應供:阿羅漢), 정변지(正遍知:正等覺者), 명행족(明行足), 선서(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사(無上士),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天人師), 불세존(佛世尊)

60-1 Write down the ten titles(epithet) of the tathagata. 여래의 10가지 명호를 쓰라.

답:

1) Buddha 불

2) World-honored One 세존

3) Worthy One(=Respectable One=Venerable One) 응공

4) Perfectly enlightened One 정변지

것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보요경’에 보면 길상이라는 사람이 그 풀이 부드럽고 윤이 나서 부처님께 바쳤다고 한다. 숫티야의 산스크리트어가 svastika이며, 이것이 바로 굽이다.

- 5) One who possessed wisdom and practice 명행족
- 6) Well-gone One(=Perfect One) 선서(善逝 **갈 서)
- 7) Knower of world 세간해
- 8) Unsurpassed One(=Supreme One) 무상사
- 9) Tamer of men / Human Tamer / Supreme Tamer 조어장부(調御丈夫)
- 10) Master of Gods and Man 천인사

해설: 여래십호는 ① 여래를 지칭하는 다른 10가지 이름이라는 뜻 외에 ② 여래를 비롯한 10가지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여래를 포함시키고 불과 세존을 합쳐서 하나로 부른다. 참고로, 법화경(구마라습 번역) 서품에 보면 불가사의한 아승지겁에 일일등명 부처님이 계셨는데 ...하면서 여래의 십호를 언급하고 있는데, 불(佛)과 세존(世尊)을 합쳐 불세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60-1 What is two titles of the Buddha's ten titles, related to Anuttara-samyak-sam-bodhi in the Heart Sutra.

반야심경에 나오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와 관련된 붓다의 칭호 두 가지는 무엇인가?

- (1) Musangsa(unsurpassed one) 무상사—Jeongdeunggak(perfectly enlightened one) 정등각
- (2) Eunggong(respectable one) 응공—Seganhae(knower of the world) 세간해
- (3) Myeonghaengjok(one who possessed wisdom and practice) 명행족
- (4) Seonseo(well-gone one)선서—Seganhae(knower of the world) 세간해

해설

- (1) 아녹다라삼막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은 여래십호 중에 무상사와 정등각(또는 정변지)과 관련이 있다.
- (2) Anuttara(위없는: 無上)-samyak(올바른: 正)-sam(두루한, 보편타당한: 等)-bodhi(깨달음: 覺)→무상정등각: 줄여서 무상정각이라고 하거나 무상정등보리, 무상정변도, 무상정변지 등으로도 번역한다
- (3)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은 직역하면 supreme(or unsurpassable / unexcelled), perfect, and universal enlightenment이며 줄여서 supreme perfect enlightenment라고 번역한다.

61.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단계를 차례대로 바르게 열거한 것은?

- ① 사선정 - 속명통 - 천안통 - 누진통 ② 무소유처정 - 사선정 - 타심통 - 누진통
- ③ 사선정 - 사무색계정 - 신족통 - 누진통 ④ 천안통 - 천이통 - 타심통 - 누진통

해설:

- (1)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정각에 이를 때와 열반에 이를 때 사선정에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사선정에서 정각을 얻고, 사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후 열반에 드셨다.
- (2)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15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으나 일본의 학자 후지타 타코츠는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⁸⁾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설이 있지만 붓

8) 후지타의 4가지 견해는 마성, 사카무니 붓다(대술바람), p.124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① 사제.십이연기와 같은 이법의 증득에 의했다는 설,

② 37조도품과 같은 수행도의 완성에 의했다는 설,

③ 오온.십이처.사계와 같은 제법의 여실한 관찰에 의했다고 하는 설,

④ 사선.삼명의 체득에 의했다고 하는 설.

다의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설이다.

62. 삼명육통(三明白通)에 속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천안명(天眼明) ② 속명통(宿命通) ③ 누진명(漏盡明) ④ 인간통(人間通)

해설:

(1) 신통력(supernatural power)은 보통 3명 또는 6신통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3명육신통이라고 종합하여 말하기도 한다.

먼저 부처님의 6신통은 천안통, 신족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의 6가지이다.

이 중에서 특히 무학위(無學位) 즉 아라한에 이르러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세 가지 일에 걸림이 없이 통달한 밝은 지혜를 삼명(三明白), 삼달(三達), 삼증법(三證法) 등이라고 하는데 속명명, 천안명, 누진명이 그것이다. 이 중에 누진통만은 불교의 무학위(아라한)이 되어야만 얻는다고 한다.

(2) 삼명의 명(明, vijja[P])은 무명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지혜를 상징하며, 지명(智明) 또는 영지(靈知)라고도 표현한다.

62-1 Vidya-carana-sampanna(明行足) or one who possessed three wisdoms and all practice well is one of the ten titles (epithet) of the tathagata.

명행족은 여래의 십대명호 중의 하나이다.

Write down the three wisdoms.

삼명에 대해 쓰라.

- 답: 1) Memory of one's past lives(= the ability to recall one's past live=Retro-cognition) 속명명
2) The divine eye(=Seeing the future lives=Clairvoyance) 천안명
3) The Power of eradicating defilements 누진명

63.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지닐 수 있는 출세간의 신통력으로 마음대로 번뇌를 끊을 수 있고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답: 누진통

64. 흔히 무사독오(無師獨悟) 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계송의 일부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항목을 고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에 더럽혀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가 다한 해탈을 얻었다.

나는 스스로 깨달았으니, 어디 스승이 있겠는가?

나는 (㉡)의 복을 치고자 카시로 간다.”-율장 ‘대품’ 중에서

- ① 장애(障礙) - 절정(絶頂) ② 갈애(渴愛) - 불사(不死)
③ 자아(自我) - 무아(無我) ④ 취기(醉氣) - 도취(陶醉)

64-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ddha and Dharma can explain as the theory of tri-kaya or three bodies.

Which of the following has no relation with three bodies of the Buddha?

붓다와 법의 관계는 삼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붓다의 삼신과 무관한가?

(1) Vipasyin(비바시불) (2) Rocana(노사나) (3) Sakyamuni (4) Vairocana(비로자나)

해설: 삼신불에 대해 법신불-비로자나, 보신불-로사나, 화신불-석가모니불로 보는 견해는 중국 천태종의 지의대사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다.⁹⁾

65.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49일 간의 행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처음 7일 동안은 천인(天人)들과 보살들의 찬탄 속에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12연기의 이치를 사유하였다.

② 네 번째 7일이 되자 마라가 다시 나타나 부처님이 되셨으니 이제 열반에 드시라고 유혹했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③ 다섯 번째 7일이 되었을 때 세상에 때 묻지 않은 이들을 위해 법을 설해달라는 마왕파순의 간절한 권청이 있었다.

④ 여섯 번째 7일이 되었을 때 두 명의 상인이 다가와서 부처님께 곡물 가루와 꿀을 공양하였다.

해설: 부처님 생애, ‘성도 후 49일’(P.113)에는 일부분이 빠져있어 마성스님의 사카무니 붓다(P.139)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 내용은 율장(Vin, I, pp.2~4)에 나온다.¹⁰⁾

66. 일곱 번째 칠 일을 다시 아자빨라 나무 아래에서 법열을 즐길 때 범천의 권청이 있었다.

성도 후, 설법을 주저했던 부처님은 ()의 권청으로 대중교화에 나설 것을 결심하였다.()에 적당한 말은?

답: 범천

67. 석가모니 당시에 재가 생활은 출가 생활과 대비하여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

합당한 것을 고르세요.

9) 천태종의 삼신불 이론을 선종에서도 채용하여 보편적 이론으로 수용되어 불교문화에서도 이에 따라 많은 불상양식이 출현하였다.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은 동일한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의 경전상의 근거로는 보현관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법신으로 보고, 범망경의 연화장세계에서 천엽백억의 크고 작은 석가모니불을 화현시키는 노사나불을 보신불로 보고, 석가모니불은 이 천엽상의 천백억화신으로서의 석가모니불을 뜻한다고 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첫 번째 7일은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연기법을 관하였다.

두 번째 7일은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렸다

네 번째 7일은 라자야따나나무 아래에서 법열을 즐길 때 마라가 다시 나타나 열반에 들라고 유혹하였다.

다섯 번째 7일은 무짚린다나무 아래에서 법열을 즐길 때 무짚린다용왕이 나타나서 몸으로 부처님을 감싸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여섯 번째 7일은 라자야따나나무 아래에서 법열을 즐길 때 땃뿔사(Tappussa)와 발리카(Bhaliika)라는 두 상인이 지나가면서 붓다의 찬란한 모습을 보고 귀의하였으며, 곡물가루와 꿀을 바쳤다. 율장 대품에 두 상인은 세존과 법에 귀의(이귀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열, 고타마 붓다(문화문고), p.186에 보면 ‘사분율(제31; 22~782)’에 두 상인이 바친 공양물을 받을 그릇이 없는 상황에서 사천왕이 각각 가져온 발우를 하나로 합쳐 그 공양물을 받았다고 한다. 발리카는 나중에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 ① 욕망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삶 ② 자유 없고 욕망에 찌들어 사는 고통의 삶
③ 어디든지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삶 ④ 어디든지 맘 편히 다닐 수 없는 구속의 삶

66. 인간의 고통이 무지(無知)에서 비롯된다는 말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 ① 인도인들은 수행을 통해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싯다르타는 스승에게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다.
③ 고통과 무지의 상관성에 착안하여 온갖 수행법을 발달했다.
④ 싯다르타 태자가 처음 발견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진리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수많은 과거불들도 발견하여 부처가 되었으므로 석가모니불이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67.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싯다르타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행위가 불순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 ② 탐욕은 결국 공포심을 가져다준다.
③ 착한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도 못 느낀다. ④ 고독한 수행자도 두려움을 느낀다.

해설: 두려움은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어리석음 즉 무명(無明:avidya[S]; avijja[P])은 명(明:vidya[S]; vijja[P]: 지혜)에 의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반야심경에도 ‘공포와 전도몽상’은 반야 즉 prajna에 의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68. 싯다르타가 출가한 뒤 최상의 지혜를 얻기 전에 감행했던 수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성이 가장 먼 항목을 고르세요.

- ① 호흡을 최대한 참는 고행을 했다. ② 쾌락의 절정을 만끽하는 고행에 빠진 적도 있다.
③ 최대한 금식하는 고행을 감행하여 살이 말랐다. ④ 깊은 선정을 체험하는 수행에 몰두하였다.

해설: 쾌락의 고통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쾌락의 허망함을 느꼈다는 의미로 보더라도 이미 부처님은 출가 전 쾌락의 허망함을 알고서 출가를 하였으므로 쾌락 추구의 수행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반대의 수행법인 고행을 통해 그 또한 양극단으로서 올바른 수행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즉 부처님은 고락중도(苦樂中道) 즉 고행주의도 쾌락주의도 진리를 체득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

69. 출가하여 고행하던 싯다르타 태자가 고행을 버린 이유를 서술해 놓았다.

거리가 가장 먼 내용을 고르세요.

- ① 고행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② 몸을 괴롭히는 것은 쓸데없다고 간파했다.
③ 고행이 너무 힘들어서 따라갈 수 없었다. ④ 궁극적인 해탈과도 멀어져 간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해설: 과거의 어떤 고행자도 나보다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통은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미래의 어떤 고행자도 나보다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통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70. 고행을 포기하고 나서 싯다르타 태자가 처음 드셨던 식사는 매우 유명하다.

그 음식물은 무엇이었는가?

- ① 우유죽 ② 적두(赤豆)죽 ③ 보리죽 ④ 완두(豌豆)죽

71. 고행을 포기한 싯다르타 태자가 드셨던 음식은 성도(成道) 직전의 공양이라는 이름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 누가 준비하여 싯다르타에게 바쳤나요?

- ① 보리살타 ② 수자타 ③ 아난다 ④ 수민다

72. 수행자 고타마가 깨달음을 얻을 당시 “내 여기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장소는?

- ① 무우수 아래 금강보좌 ②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
③ 사라나무 아래 금강보좌 ④ 염부나무아래 금강보좌

73.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최상의 지혜를 얻기 직전에, ‘마라’라는 악마의 유혹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 그 유혹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의 쌍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인가요?

- ① 갈애 - 탕하 ② 파괴 - 쉬바 ③ 혐오 - 아라티 ④ 탐욕 - 라가

해설: 힌두교의 삼신을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창조의 브라마, 유지의 비슈누, 파괴의 쉬바가 힌두교의 삼신이다.

74. 성도(成道)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갖가지 능력 가운데서 번뇌를 말끔히 없애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① 축지통(縮地通) ② 천안통(天眼通) ③ 누진통(漏盡通) ④ 타심통(他心通)

해설: 불교에서 루(漏 셸 루)는 더러움, 누설, 번뇌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 누진통은 번뇌가 다하는 신통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의 6신통 중 마지막으로 성취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완전히 번뇌를 멸하는 것은 부처만이 가능하며, 외도들은 신통을 얻더라도 누진통은 얻을 수 없다.¹¹⁾

75. 불보살님은 정등정각(正等正覺)이라는 말로 수식되곤 한다. 올바른 뜻은 어떤 것인가요?

- ① 완전한 보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 ② 완전한 보시와 무한한 인내를 가진 자
③ 최상의 지혜와 최상의 미모를 가진 자 ④ 최상의 능력과 최상의 보시를 가진 자

해설: 정등정각은 삼막삼보리(samyak-sam-bodhi)의 번역이며, 삼막samyak은 “바른(正) sam은 “보편타당한(等)”, 보디는 깨달음(覺)이라는 뜻이므로 직역하면 정등각이며, 정등정각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바르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깨달은 분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 의미는 완전한 지혜를 성취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깨달음은 단순히 지혜의 증득만이 아니라 자비심도 당연히 충만한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최상의 진리와 자비심을 가진 자이므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여 진리를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므로 4번이 답이다. 1번이 틀린 이유는 부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전지전능한 신이란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76. 인도의 문화 전통에 따르면 지혜를 얻은 수행자들과 잘 어울린다고 보는 상징물들이 있

11) 불교에서 번뇌의 대명사로 흔히 사용되는 루(漏)와 관련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① 유루법과 무루법(무위법과 사성제의 도제), ② 유루신(번뇌를 증장시키는 몸)과 무루신(불신, 부처님의 몸), ③ 유류종자(모든 현상을 생기게 하는 종자)와 무루종자(제8아라야식 가운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루의 종자로서 깨달음의 인(인)이 되는 것) ④ 유류삼계(번뇌로 인해 생긴 중생의 세계)와 무루계(= 무루법계, 번뇌가 없는 진실한 세계).

다. 그에 따르자면, 석가모니부처님의 주변을 장식하는 것들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를 고르세요.

- ① 염주 ② 꽃 ③ 향기 ④ 바람

77.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정의를 내린 브라만 개념에 합치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 ① 선행을 실천하는 이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② 고행을 하는 이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③ 나체행을 하는 이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④ 제사를 정성껏 올리는 자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78. 석가모니부처님은 스스로 자각한 진리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때, 그 생각을 바꾸어 준 역할은 누가 담당하였나요?

- ① 수미 ② 수지 ③ 범천 ④ 범부

해설: 범천권청이라고 한다.

79.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각을 얻고 나서 이렇게 행각하였다.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항목을 고르세요.

“어렵게 도달한 이 진리는 깊고,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려를 넘어서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에 사로잡혀 지내기 때문에, 이 깊고 미묘한 (㉡)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① 소란 - 연꽃 ② 소동 - 연화 ③ 욕망 - 안목 ④ 집착 - 인연

80.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은 후 선정에 몰입해 있던 초기에 지나가는 대상(隊商)형제가 공양을 바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의 이름으로 쌍을 이룬 항목을 고르세요.

- ① 무짚린다 - 발리카 ② 땃뿔사 - 발리카 ③ 땃푸사 - 아난다 ④ 아난다 - 땃푸사

해설: 부처님이 성도 후 6번째 칠 일째 장사꾼으로서 부처님 옆을 지나가던 땃뿔사와 발리카가 곡물가루와 꿀을 공양 올리셨다. 이 두 사람이 최초의 재가신도라고 볼 수 있으나, 단 초전법륜을 하기 전이어서 승단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3보에 귀의한 재가신도는 아니다.

80-1 The following is a story about the Buddha.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each blank. 아래의 글은 붓다에 관한 이야기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을 고르세요. According to a legend, after Buddha awakened, he met two merchants, named () and (), who became his first lay disciples. They were each given the Buddha's hairs, which are now claimed to be enshrined as relics in the Shwe Dagon Temple in Rangoon, Burma.

전설에 따르면 붓다가 깨달음을 이룬 후 ()과 ()라는 이름의 두 상인을 만났으며, 그들이 최초의 재가불자가 되었다. 그들은 각각 붓다의 머리카락을 받아 버마 랑군의 쉐다곤 사원에 성물로서 모셨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 (1) Tapussa, Bhallika (2) Yasa, Prasejinat (3) Bimbisara, Asoka (4) Nanda, Kassapa

81. 다음 중 부처님의 최초의 재가 신도는 누구인가?

① 야사와 친구들 ② 깃사빠 삼형제 ③ 빔비사라왕 ④ 야사의 부모

해설: 부처님의 최초의 재가신도는 땃뿌사와 발리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삼귀의가 아닌 이귀의 즉 불과 법에 귀의하였으며, 삼보에 귀의 즉 삼보가 성립한 이후에 최초의 재가신도는 야사의 부모이다.

81-1 Who are the first upasaka and upasika of the Buddha?

다음 중 부처님의 최초의 재가 신도는 누구인가?

(1) Yasa's parents (2) Kasyapa's parents (3) Sariputra's parents (4) Purna's parents

82. 부처님의 최초 남녀 재가 신도들이 불, 법, 승 3보(寶)에 귀의하였다. 그들은 누구의 부모님이었나요?.

① 사리불 비구 ② 아난 비구 ③ 야사 비구 ④ 고타미 비구니

8. 초전법륜과 승단의 성립

83. 최상의 지혜를 얻은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널리 퍼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그 때 첫 설법 대상으로 누구를 생각하였나요? 그 이름과 신분을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세요.

① 아난다-스승 ② 아라다 깔라마 - 스승 ③ 아라다 깔라마 - 제자 ④ 아난다 - 제자

해설: 부처님은 성도 후 알라라깔라마를 먼저 생각하고 법을 전하여 했으나 1주일 전에 죽었고, 우다까라마뵈다는 어젯밤에 죽었다고 천인이 알려주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살피니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같이 수행하였던 다섯 수행자에게 법을 전하기로 마음 먹고 먼 길을 떠났다.

84. 부처님께서 함께 고행했던 다섯 명의 거처를 알고자 천안으로 살펴본 뒤에 그 장소를 알아내었다, 그곳은 어디가요?

① 녹야원 ② 수다원 ③ 룸비니원 ④ 녹자모원

해설: ② 번의 수다원은 초기불교의 수행과정에서 예류과 다음의 두 번째 수행단계이다.

④번의 녹자모원 또는 녹자모 강당은 위사까가 기증한 사원이다. 위사까의 별명이 녹자모 즉 녹자의 어머니이다.¹²⁾

85. 부처님의 고행 시절, 함께 수행했던 다섯 비구를 찾아가는 길에 만난 첫 인물은 아지위까 수행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름을 고르세요.

① 우팔리 ② 아난다 ③ 카쉬야파 ④ 우빠까

해설: 아지위까교도 우빠까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 아지위까교도란 막칼리고살라의 추종자들을 뜻하며, 사명외도(邪命外道)라고 불리며, 우빠까는 부처님의 경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86.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진리를 최초로 전한 대상은?

12) 녹자모원(녹모강당, 녹모당, 녹자모 강당)은 사위성(사왓띠[P], 스라와스띠[S]) 동쪽 성문 밖에 위치하여 동원정사(東園精舍, Pubbarama[P])라고도 불렸다. 우리나라에도 남양주에 동원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찰이 있다.

① 카필라국 백성들 ②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 ③ 정반왕과 왕실 가족 ④ 가섭 삼형제

해설: 교진여는 꼰다냐의 음역이다. 불전에 의하면 그는 부처님 뒤에 앉았다고 한다.

87.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신 곳은 어디인가?

① 녹야원 ② 룸비니 ③ 구시나가라 ④ 보드가야

해설: 녹야원은 와라나시¹³⁾(와라나Varana)강과 아시(Asi)강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

88.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다섯 비구 중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비구는 누구인가?

① 마하나마 ② 밧디아 ③ 꼰단냐 ④ 앓사지

해설: 5비구 중 다른 한명은 왁빠이며, 꼰단냐(Kaundinya[S]; Kondanna[P])가 가장 먼저 깨달자 기뻐하시는 부처님이 안냐따꼰다냐라고 외치셨다고 한다. 안냐따꼰단냐는 "꼰단냐가 깨달았다"라는 뜻이다.

88-1 Who is first awakened bhikkhu when Buddha delivered his first sermon to five bhiksus at the Deer Park in Sarnath, Benares(or Varanasi)

붓다는 베나레스의 사르나트에 있는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였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비구는 누구인가?

(1) Kondanna[P] (2) Assaji (3) Vappa[P] (4) Bhaddhiya[P]

해설

꼰단냐(Kondanna[P]; 까운디냐Kaundinya[S])는 교진여라고 한역되었다.

오비구는 붓다의 설법을 듣기까지 계속 고행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five ascetics라고도 표현한다.

앓사지(Assaji)는 아설시(阿說示)로 음역되거나 마승(馬勝)이라고 번역하며 지혜제일 사리불이 마승비구를 만난 후 불법에 귀의하게 된다.

89.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① 오온의 무상, 고, 무아 - 중도 - 사성제 ② 중도 - 사성제 - 오온의 무상, 고, 무아

③ 사성제 - 중도 - 오온의 무상, 고, 무아 ④ 오온의 무상, 고, 무아 - 사성제-연기

90. 다음 가르침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수행자여,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느니라.

그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기는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는 고행의 길이다.

수행자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나는 바로 중도를 깨달았으며, 그 길에 의하여 생노병사의 온갖 괴로움을 버리고 평화로운 해탈의 기쁨을 얻었느니라.”

① 최초의 설법으로 흔히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②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에게 설한 것이다.

③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 등 연기의 이치를 설하였다.

④ 이때 최초의 제자 우바새, 우바이가 탄생되었다.

13) 와라나시는 와라나(Varana)강과 아시(Asi)강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91. 부처님께서 4제(四諦)를 설명할 때, 시전(示轉), 권전(勸轉), 증전(證轉)을 통해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를 요약한 용어는 어떤것인가요?

- ① 삼전십이행상(三轉十二行相)
- ② 삼전십이연기(三轉十二緣起)
- ③ 삼행십이연기(三行十二緣起)
- ④ 사제십이전상(四諦十二轉相)

해설: 사성제를 보여주고, 권하고, 증득하게 하는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니 고.집.멸.도에 각각 3전 즉 시전, 권전, 증전을 적용하여 12가지 수행과정과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92. 부처님이 성도한 후 다섯 비구들에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각각 세 차례씩 열 두가지 양상으로 바르게 사실 그대로 완벽하게 알고 보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밑줄 친 양상으로 고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 삼전십이행상(三轉十二行相)

해설: 삼전은 ① 시전, ② 권전, ③ 증전을 뜻하며, 시전(보여주고), 권전(권하고), 증전(증명한 다). 즉 4성제를 시, 권, 증의 3가지로 해서 12가지로 설명해 주신 것이다.

93.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삼보가 성립하게 된 계기가 된 일은?

- ① 부처님이 출가하시면서 ②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 ③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탄생하면서 ④ 빔비사라왕이 죽림정사를 기증하면서

94.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최초의 비구 - 교진여 등 5비구
- ② 최초의 비구니 - 마하파자파티
- ③ 최초의 우바새, 우바이 - 야사의 부모
- ④ 최초의 재가 신도 - 유마거사

해설: 유마거사는 대승경전의 하나인 유마경의 주인공이다.

95. 부처님 재세 시부터 기쁨에 넘치는 신앙고백으로 오늘날까지 모든 불교의식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의식은 무엇인가?

답: 삼귀의례

96. 참다운 불자가 되기 위해서 귀의해야 할 세 가지 대상을 쓰시오.

답: 불.법.승

97. 불교의 교단인 승가(僧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승가의 주요 덕목은 평등과 화합이다. ②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의 수행 공동체다.
- ③ 규율과 권위를 중시한 획일적인 공동체다. ④ 넓은 의미의 승가는 출가자와 재가자로 구성된다

98. 다음 중 부처님의 최초의 재가 신도는 누구인가?

- ① 야사와 친구들 ② 깃사빠 삼형제 ③ 빔비사라왕 ④ 야사의 부모

9. 전도선언과 승가의 확장

99.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도 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명구이다.

관련된 설명 가운데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도리에 맞고 언설이 잘 정돈된 진리를 설하라-율장 ‘대품’ 중에서”

- ① 중생의 애민을 위해 설법하라. ② 하늘의 신들만을 위해서 설법하라.
③ 중생의 안락을 위해 설법하라. ④ 인간의 이익을 위해 설법하라.

100.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전도 선언문’의 내용이다.

“비구들이여,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진리)을 설하라.

사람 중에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 이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비구들이여.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루벨라로 가리라.”

위 글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은?

- ① 법을 전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② 설법자의 태도와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③ 법을 설하는 시기와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④ 설법의 대상에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다.

101.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해둔 출가와 교단 입문의 원칙에 합치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 ① 삭발(削髮), 고행(苦行), 3귀의 ② 염의(染衣), 가사(袈裟), 5귀의
③ 삭발, 가사, 3귀의 ④ 삭발, 염의, 5귀의

102. 부처님께서서는 설법 중에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라고 가르쳤다.

그 의미에 부합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 ① 탐, 진, 치 삼독(三毒)의 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는 뜻이다.
② 불이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세상의 붉은 색을 말한다.
③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욕심 없이 산다는 뜻이다.
④ 불로 태워 없앨 수 있다면 불을 지르라는 의미이다.

103. 다음 내용은 부처님께서 야사와 그 친구들이 출가 한 후 비구들의 숫자가 60명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답: 전도선언

104. 초기 교단의 교세 확장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그 실제와 다른 것을 고르세요.

- ① 왕과 귀족의 귀의 ② 정사의 건립 ③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의 간접적인 설법
- ④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를 받은 대중의 집단적 귀의

105. 깃사빠(카쉬야파[S]) 삼형제가 부처님의 교단에 귀의하게 된 일화이다. 가장 관련이 없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 ① 우루웰라 깃사빠(우루빌바 카쉬야파[S])는 제자 500명을 데리고 귀의했다.
- ② 우루웰라 깃사빠(우루빌바 카쉬야파[S])가 맏형이다.
- ③ 1,250명에 달하는 초기 교단 구성원 중 1,000명이 삼형제의 제자들이었다.
- ④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전혀 쓰지 않고 교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해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독룡을 화광삼매로 굴복시켜 발우에 담아서 나오시기도 하고, 물위를 걷기도하셨다.(부처님의 생애, 깃사빠 삼형제의 제도, P.144)

붓다가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한 후 다섯 명 모두 아라한이 되었으며, 이어서 두 달 안에 야사와 그의 친구 54명이 귀의하여 60명의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가섭이라는 이름의 3형제가 개종하자 그들의 뛰어난 제자 200,300, 500명이 각각 그 뒤를 따랐다.

106.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 이후 마가다국의 우루웰라에서의 교화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당시 이름 있는 가섭 삼형제와 그의 제자 1000여 명을 함께 교화하였다.
- ② 왕사성의 국왕인 빔비사라왕과 그 신하들을 교화하였다.
- ③ 이 무렵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사리불, 목건련, 마하 가섭이 출가하였다.
- ④ 이 무렵 사바티의 부호 수닷타가 기원정사를 지어 바쳤다.

해설: 마가다국의 수도가 왕사성 즉 라자그리하(Rajagriha[S])이며, 꼬살라국의 수도는 스라와스띠(Sravasti[S]; 사왓티(Savatthi[P]))이며, 사위성 부호 수닷타(Sudhatta)가 기원정사(Jetavana monastery)를 지어 바친 것은 꼬살라국에서의 일이다.

107. 깃사빠 삼형제의 귀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다른 것은?

- ① 성도하시던 해 여름 우기(雨期)때의 일이다.
- ② 마가다국의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들이었다.
- ③ 제자 천 명과 함께 차례로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 ④ 부처님 입멸 후 불법은 가섭에게 부촉되었다.

해설: 깃사빠(가섭으로 음역한 한역을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는 많이 사용)라는 성을 가진 수행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깃사빠 삼형제(가섭 삼형제)를 비롯해서 이들보다 나중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을 부촉 받은 마하깃사빠(마하가섭)로 불리는 상수제자에 이르기까지 같은 성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④번의 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왜냐하면 마하가섭을 그냥 가섭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가섭 삼형제는 큰 형부터 우루웰라 깃사빠, 나디 깃사빠, 가야 깃사빠로 불리우며, 차례로 500명, 300명,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두 부처

님께 귀의하였다.

108. 다음 가르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비구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빗깔과 형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의 접촉이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의 접촉에서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들이 불타고 있다.”

① 부처님이 까뻔라성에서 행한 대표적인 설법이다.

② 부처님께서 깃사빠 삼형제를 귀의시킨 후 하신 설법이다.

③ 흔히 기독교의 ‘산상수훈’에 비견되는 감동적인 가르침이다.

④ 여기서 불은 탐욕·분노·어리석음의 불을 말한다.

해설: 우루웰라의 상두산에서 깃사빠 삼형제와 그 제자들에게 설한 말씀이다. 배화교도(拜火教徒: fire worshiper)인 이들을 위해서 불에 비유하여 설명하셨다.

109. 부처님 당시 최초로 부처님께 귀의한 왕은?

① 슛도다나왕 ② 빔비사라왕 ③ 아자따삿뚜왕 ④ 빠세나디왕

110. 마가다국의 빔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헌납한 불교교단 최초의 도량은?

① 기원정사 ② 동원정사 ③ 죽림정사 ④ 룸비니 동산

112. 부처님 당시 세워진 불교 최초의 사원 이름은?

답: 죽림정사(Bamboo Grove Monastery)

해설: 기원정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죽림정사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마가다국에 소재하며, 기원정사는 꼬살라국의 수달(수달타의 음역)장자가 기타(제타의 음역)왕자와 함께 기증한 사찰이다.

112-1 유제: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사찰은 무엇인가?

① 이불란사와 성문사 ② 불국사 ③ 흥륜사 ④ 도리사

해설: 성문사는 초문사라고도 한다.

113. 부처님께서 고향 방문을 마치신 후 무렵에 이루어진 기원정사의 건립기증과 관련된 일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제타 태자는 수달따 장자에게 동산을 황금으로 덮으면 팔겠다고 제의하였다.

② 수달따 장자는 시따와나 숲에 머무시던 부처님으로부터 정사를 짓도록 부탁을 받았다.

③ 정사를 짓기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낸 곳은 꼬살라국의 태자인 제따 소유의 동산이었다.

④ 부처님께서는 사리뵈다로 하여금 수달따 장자와 함께 정사를 지을 장소를 물색하도록하였다.

해설: 부처님이 정사를 짓도록 부탁한 것이 아니라, 수달따 장자가 정사를 짓겠다고 제의한

것이다.

114. 부처님 당시 빔비사라왕이 부처님과 비구들을 위해서 마련한 정사의 위치로 적당치 않은 곳은?

- ① 낮에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곳 ② 밤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곳
③ 법을 듣기 위해 쉽게 갈 수 있는 곳 ④ 일반 사람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

해설: 불교의 사원은 탁발제도 때문에 마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탁발을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행에 지장이 된다. 우리나라의 불교사원도 마을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으나—특별히 수행을 위해 일부러 산으로 가는 것 외에는—조선시대의 억불정책으로 산지에 많은 가람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115. 부처님이 머물던 초기 정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 ① 2대 정사 중의 하나인 기원정사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에 지어졌다.
② 정사는 승가 대중이 머물러 살면서 수행을 게을리 하는 장소이다.
③ 수돗타 장자의 깊은 불심과 엄청난 재력으로 기원정사가 세워졌다.
④ 죽림정사와 기원정사는 지금 불교 사찰의 기원이다.

116. 정사 건물을 지어도 좋은 장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중에서 틀린 것은?

- ① 숲속에 짓는 것이 좋다
②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용한 곳이어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지어야 탁발하는데 이롭다.

117. 빔비사라 왕은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자기 소원 5가지를 모두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 설법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르는가?

“이것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 ① 고통의 설법 ② 고통의 소멸법 ③ 3제(諦) 설법 ④ 4제(諦) 설법

해설: 사제설법이란 사성제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설명한 것이다.

118. 빔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만나고자 장림(杖林)으로 가면서,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갔다. 그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 하나를 고르세요.

- ① 마차 ② 일산 ③ 황금 옷 ④ 황금 신

해설: 랏티와나숲의 사당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온 빔비사라왕은 수레, 왕관, 일산, 부채, 보검, 황금신 등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모두 떨치고 맨발로 걸어 들어갔다.

119. 부처님께서 빠세나디왕에게 해 주었던 설법에 나오는 계송이다.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여 음식을 먹을 때 마다 양을 조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화가 잘 되어 몸이 가볍고 () 도 편안해져서 여러 ()이 적어지고 마침내 오래 살 수 있으리라”

① 등짐, 근심 ② 마음, 사람 ③ 마음, 고통 ④ 걱정, 등짐

해설: 꼬살라국의 빠세나디왕과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은 항상 기억해야 한다.

꼬살라국과 마가다국은 인도 고대 16대 왕국 중에 가장 강대한 국가였는데, 꼬살라왕국의 왕 마하꼬살라(Mahakosala)는 마가다국의 왕 빔비사라(Bimbisara)에게 자신의 딸 웨데히(Vedehi)를 시집보내고, 동시에 빔비사라의 누이를 자신의 아들 빠세나디(Pasenadi)와 결혼시켜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었다.¹⁴⁾

120. 부처님께서는 꼬살라국의 빠세나다왕에게 이 세상에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를 바르게 열거한 것은?

① 왕자, 독사, 불씨, 수행자 ② 왕자, 사자, 독사, 수행자
③ 코끼리, 사자, 불씨, 씨앗 ④ 코끼리, 독사, 불씨, 씨앗

121. 꼬살라국 빠세다니왕의 왕비였고, 왕을 부처님에게 귀의 시킨 것으로 유명한 부인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① 말리카 부인 ② 승만 부인 ③ 수자타 부인 ④ 난다 부인

해설: 승만부인은 대승경전에 속하는 승만경(Srimala Sutra)에 나타나는 주인공이다.

이 경전에서는 승만부인(Srimala devi)은 꼬살라왕국의 빠세나디왕과 말리카(Malika) 사이에 태어난 슈리마라(Srimala)를 음역 한 말이 승만(勝鬘)이며, devi는 여신, 여왕이라는 뜻이다. 승만부인은 아유타(Ayodhya)국 우칭왕과 결혼을 하였다.

승만경은 유마경과 함께 재가신도가 주인공이 되는 독특한 형식의 경전이다.

122. 결혼하여 외도에 빠져 있던 시댁을 교화시킨 것으로 유명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내가 내 어머니”라고 하여, 녹자모(鹿子母)라는 별칭을 가졌던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① 비사카(위사카[P,S]) ② 아난다 ③ 난다 ④ 우파난다

해설: 위사카(Visakha[P,S])의 시아버지인 미가라(Migāra)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귀의하면서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너는 나의 어머니이다”라고 하였으며 집안의 재산을 모두 위임하였다. 그 이후 사람들은 위사카를 미가라의 어머니(鹿子母)라고 불렀다.

위사카가 기증한 녹자모강당은 사위성 동쪽에 위치하여 동원정사(東園精舍)라고도 한다.

***위사카(Visakha[P,S])를 영어식 발음으로 비사카로 한글 표기한 것은 잘못이지만 흔히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암기해야 한다.

14) 불교사에서 중요한 인물은 부처님 당시의 꼬살라국의 빠세나디와 그의 아들 위두다바, 그리고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와 그의 아들 아자따스투인데, 빠세나디와 빔비사라 모두 자신의 아들인 위두다바와 아자따스투에 의해 왕권을 탈취당하고 죽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꼬살라국 빠세나디의 왕권을 찬탈한 위두다바(Vidudabha[P]; 위루다까 Virudhaka[S])는 중국에서는 유리(琉璃)왕이라고 음역하기도 하였다. 그는 그 당시에 부처님의 사촌으로서 석가족의 왕족들이 출가한 이후 왕위를 승계한 마하나마(Mahanama[P,S])가 다스리던 까뻬라국을 멸망시키고 곧 천벌을 받아 죽게 되며, 이 불행한 일은 부처님 말년에 일어난 일이다.

마가다국 빔비사라의 왕권을 찬탈한 아들은 아자따스투(Ajasttu)이며,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참회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아들 우다이밧다(Udayibhadda, B.C. 462~446)에 의해 왕권을 찬탈당하고, 우다이밧다는 빠탈리пут타(Pataliputta)—지금의 비하르주의 수도 빠뜨나(Patna) —로 수도를 옮긴다.

123. 왕사성에 거주하던 처남이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 부처님께 귀의하고 제따 태자 소유의 숲을 구입하여 기원정사를 건립하여 부처님께 기증한 사왓티의 상인은 누구인지 쓰시오.

답: 수닷따(P,S), 수달([C])

123-1 기타(祇陀) 태자가 소유하고 있던 숲을 구입하여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을 지어서 부처님께 헌납한 것으로 유명한 부자의 이름을 고르세요.

① 아난다(Ananda) ② 수닷타(Sudatta) ③ 수부티(Subhūti) ④ 앓사지(Assaji)

해설: (1) 기타(제타의 음역)태자는 고살라국 빠세나디왕의 아들이라서 빠세나디의 왕권을 찬탈한 위두다바(산스크리어는 위루다까)와는 이복형제이다. 제타태자는 나중에 위두다바가 왕권을 찬탈한 뒤에 그에게 살해당한다.

(2) 수부티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해공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은 수행자로서, 중국에서 수보리라고 음역하였다. 앓사지는 초전법륜의 5비구 중 한 명으로서 마승이라고 번역되었다.

123. 아버지는 이 정사를 지어 바쳤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으며 데와닷따의 반역에 동조하여 부처님을 해치려 시도하는데 협력했다.

데와닷따의 반역이 일어난 곳이기도 한 마가다국에 있었던 이 정사의 이름을 쓰시오.

답: 죽림정사

해설: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과 웨데히왕비의 아들 아자따삿투왕의 이야기이다.

124. ‘왕사성의 비극’을 주제로 하여 웨데히왕비가 고뇌를 떨치고 서방정토로 구제되어 가는 순서를 관불, 관상의 설법으로 명백히 밝혀, 타력구제의 진실성을 범부중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경전은?

① 관무량수경 ② 법화경 ③ 화엄경 ④ 아함경

해설: (1) 웨데히(와이데이[S]; 위제히[C])

(2) 관무량수경은 초기경전이 아니고 대승경전이다. 정토신앙을 선양하는 이 경전에서 왕사성의 비극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차용하여 편집된 경전이 관무량수경이다.

125. 데바닷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전승 내용과 다른 항목을 고르세요.

① 함께 출가했던 아누룻다와는 사촌 사이였다.

② 부처님과 혈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③ 너무나 교만해서 빨리 지혜를 얻지 못했다.

④ 부처님을 죽이고 교단을 차지할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126. 부처님을 배반했던 데바닷타 비구와 합심했던 왕의 이름을 고르세요.

① 아자타삿투(아자따사뜨루[S])왕 ② 빔비사라왕 ③ 아쇼카왕 ④ 정반왕

127. 부처님을 반역했던 제자 데와닷따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이 아닌 것은?

① 데와닷따는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서 불교 교단을 자신이 통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② 데와닷따는 오백 명의 왓찌족 출신 수행자들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가서 별도의 승가를 선언하였다.

③ 데와닷따는 3번이나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자 후한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쳤다.

④ 데와닷따를 따라 가야산으로 갔던 오백 명의 비구들은 마라목갈라나의 신통력과 사리뵈따의 설법으로 감화되어 다시 돌아왔다.

해설: 부처님께 참회하러 기원정사(제따와나라마) 앞 까지 왔으니 땅이 갈라지며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다.

128.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에 있는 기수급고독원(紙樹給孤獨園)에서 큰 비구(比丘)들 천 이백 오십 사람과 함께 계셨다.”

이 경전 구절에 나타난 천 이백 오십 사람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깟사빠 삼형제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② 사리뵈따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③ 마하목갈라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④ 빔비사라왕과 마가다국 수행자들

해설: “나는 이와같이...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이란 사위국=꼬살라국을 의미하므로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와는 맞지 않는다.

꼬살라왕국의 수도 스라와스피를 사위성, 사위국이라고 하는데, 스라와스피가 꼬살라왕국의 수도이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의 수도를 국가의 명칭으로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빔비사라왕은 마가다국의 왕이며, 마가다국의 수도는 라자가하 즉 왕사성이다.

10. 부처님의 제자들

129. 다음 중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 ① 부처님은 귀족, 평민, 노예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였다.
②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없다.
③ 부처님에게 교화되어 귀의한 사람들 중에는 이교도들이 없다.
④ 당시 최대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강요나 정복에 의해서다.

130. 유마경에 언급된 말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수승한 능력을 지닌 열 분의 제자를 십대제자라고 말하는데, 십대제자의 이름을 쓰시오.

사리불, 목건련, 가섭, 아나율, 수보리, 부루나, 가전연, 우팔리, 라훌라, 아난다.

해설: 부처님의 제자는 초기경전에는 10대제자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그 보다 훨씬 많은 제자들의 특성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나중에 대승경전 중에 백미라고 일컫는 유마경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제자가 등장하며, 석굴암에 유마경의 10대제자에 근거한 대표적 양식이다.

131. What is the incorrect answer about match between the ten major disciples of the Buddha and their individual excellent characteristics.

붓다의 10대 제자와 그들 개개인의 뛰어난 특징에 대한 연결 중 틀린 것은?

(1) The foremost in ascetic practice(or dhuta)-Katyayana[Pali: Kaccayana /

Kaccana]

- (2) The foremost in hearing-Ananda[Pali: Ananda] 다문제일 아난존자
- (3) The foremost in wisdom-Sariputra[pall: Sariputta] 지혜제일 사리불
- (4) The foremost in supernatural power: Maudgalyana[Pali: Mogallana]神通제일 목건련

해설

- (1) 조계종 기출문제를 영역한 것이다. 인명에 대해 산스크리트어를 앞에 표기해 보았다. 부처님의 생애가 인명과 지명을 빨리어로 표기하여도 번역자가 산스크리트어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보기 바란다.
- (2) 엄격한 수행(ascetic practice) 즉 두타(dutha)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Maha Kasyapa [Pali: Kassapa] 두타제일 가섭존자" 이다.

131. 염화시중(拈華示衆)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 ① 마하깟사빠(마하카쉬야파) ② 범천 ③ 부처님 ④ 아난다

해설: 대범천이 하늘에서 내려와 새하얀 연꽃을 바치고 물러나자 부처님께서 그 연꽃을 대중에게 들어 보이며 아무 말씀 없으실 때 마하깟사빠만이 빙그레 웃었다.

131-1 Who is he?그는 누구인가?

1.He was renown for the foremost of Dhuta or ascetic practice.

그는 두타 즉 엄격한 수행에서 가장 뛰어났다.

2.He presides the first council after Buddha's parinirvana.

붓다의 대열반 후 제1회 결집을 주재하였다.

3.He accused Ananda of not having supplicated the Buddha to prolong his earthly existence.

그는 아난다가 붓다에게 세속에 더 머물도록 요청하지 않았다고 문책하였다.

4.He was the first patriarch in Chinese Seon(Zen)Buddhism.

그는 중국 선불교에서 초조이다.

(1) Kassapa(Kasyapa[S]) (2) Kaccayana(Katyayana[S])

(3) Subhuti(P,S)) (4) Punna(Pruna[S])

132. 부처님께서 마하깟사빠(마하카쉬야파[S])에게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삼처전심(三處傳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 ① 영산회상의 염화미소(拈花微笑). ② 영취산에서 같은 자리에 앉은 것.

- ③ 다자탑(多子塔) 앞에서 자리를 나눈 것. ④ 쌍림(雙林)의 관(棺) 속에서 발을 내민 것.

해설: 영취산에서 같은 자리에 앉은 것은 대승경전인 법화경에 등장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여래와 관계되는 이야기이다. 법화경의 견보탑품을 보면 석가모니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자 땅이 진동하며 다보여래의 보탑이 솟아오르며 이 보탑에 석가모니부처님이 날아올라가 다보여래와 옆에 나란히 앉는 장면이 연출된다. 이것을 불교문화에서는 이불병좌상(二佛並坐像)이라고 하며, 이것을 표현한 것이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133. 부처님께서 전 생애 동안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직접 설법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

가?

① 보리달마 (Bodhidharma) ② 암바팔리 ③ 데바닷타 ④ 앙굴리말라

해설: 보리달마는 송산 소림사, 면벽9년, 양무제와의 대화 등으로 유명하지만 문헌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흔히 인도에서 건너 온 바라문 출신의 불교승려로서,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이어온 가섭과 그 다음으로 아난으로 계보가 상속되는 서천 28조의 마지막 분이시며,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는 분이다.

134. 어린 시절 “불사의 길을 발견하면 꼭 서로에게 알려주도록 하자.”고 다짐하고 성인이 되어 함께 부처님의 제가 된 사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사리뵏따와 마하목갈라나 ② 마하갓사빠와 아난다 ③ 우빨리와 라훌라 ④ 쫄라뵏타카와 앙굴리말라

해설: 사리뵏따와 (마하)목갈라나는 출가 후에 불린 명칭으로서 사리뵏따의 본명은 우빠뵏사(Upatissa)이고, (마하)목갈라나는 켈리따(Kolita)였다.¹⁵⁾

135. 부처님의 십대제자로 원래는 육사외도의 회의론자였던 산자야를 섬기었으나, 마승비구를 만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목건련과 함께 십대제자 중에서 제일먼저 귀의한 인물이며, 특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누구인가?

① 아난다 ② 가섭 ③ 사리불 ④ 가전연

해설: 위의 문제에 표기된 단어는 한역된 용어들이므로 각각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순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난다(P,S), ② 가섭(갓사빠[P]; 까시아빠[S]), ③ 사리불(사리뵏따[P]; 사리뵏뜨라[P]; 사리불, 사리자[C]), ④ 가전연(갓짜야나, 갓짜나[P]; 까띠아야나[S])

136. 사리뵏따(사리뵏뜨라[S])와 관련된 설명들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인가요?

①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② 고행 제일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③ 엄마 이름은 루빠사리였다. ④ 산자야 벨라티뵏따에게서 불가지론을 배웠다.

해설: 사리뵏따의 스승은 산자야이며, 사리뵏따의 본이름은 우빠뵏사이며 마하목갈라나의 이름은 켈리따이다.

인도에서도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었다. 사리자는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사리뵏뜨라의 뵏뜨라(putra: 팔리어로는 뵏따 putta)는 자식이라는 뜻이다.

137. 다음은 5비구중의 한 명인 앗사지(馬勝 마승)비구가 우빠뵏사(사리뵏따의 이름)에게 일러준 계송이다.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일체는 (㉠)이(가) 있어 생기는 것, 여래는 그 (㉡)을(를) 설하시네.

15) 사리불 즉 우빠뵏사의 어머니는 루빠사리—줄여서 사리—였으며, (마하)목갈라나 즉 켈리따(Kolita)의 어머니는 목갈리(Moggali) 또는 목갈라니(Moggallani)이다. 따라서 사리뵏따 또는 목갈라나는 모계사회의 영향을 받아 어머니의 이름을 응용하여 붙인 것이다. 목갈라나의 본명인 켈리따는 그가 태어난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다. 참고로 목갈라나(Moggallana)의 어머니는 목갈리니(Moggallani)인데,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에서 여성화 접미사는 ‘i’ / ‘ika’ / ‘ni’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바새(남성 재가불자)는 upasaka를, 우바이(여성재가불자)는 upasika를 음역한 말이며, 비구는 bhikkhu를, 비구니는 bhikkhuni를 음역한 말이다.

그리고 또 그 (㉠)까지도 위대한 사문은 이와 같이 가르치네.“

① ㉠ 이유, ㉠ 결과 ② ㉠ 원인, ㉠ 소멸 ③ ㉠ 조건, ㉠ 상황 ④ ㉠ 연기, ㉠ 해탈

138. 초전법륜의 대상인 5비구 가운데서 가장 늦게 아라한이 된 비구로서, 사리뿌뜨라를 부처님께 귀의시켰던 일화로도 유명하다. 누구인가요?

① 마하나마 ② 샤키야 ③ 슈라마나 ④ 앗사지

해설: 오비구 중 제일 먼저 깨달은 분은 ① 쾨단냐로 안냐따쾨단냐(쾨단냐가 깨달았다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기뻐서 하신 말씀에서 나왔다)로 불리우며, 이어 ② 왓빠와 밧디야, ③ 마하나마와 앗사지의 순서로 깨달게 된다. 즉 (1) 쾨단냐가 가장 먼저, 다음으로 (2) 왓빠와 밧디야가 함께, 그 다음으로 (3) 마하나마¹⁶⁾와 앗사지가 함께 깨달았다.

이 중 앗사지(마승비구)는 위의를제로 위엄 있게 걷는 모습을 보고 사리뿌뜨라가 감탄하여 누구의 제자인가를 물어보는 것을 계기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139. 제자들에 대한 부처님의 평에 나오는 말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항목을 고르세요. 그 둘은 마치 중생의 부모와 같다. 비구들아, (㉠)와 (㉡)를 따르고 가까이 하라.

① 사리뵤따 - 목갈라나 ② 아난다 - 마하갓사빠

③ 라훌라 - 아난다 ④ 라훌라 - 사리뵤따

140. 마가다국의 부유한 바라문 아들로 태어나 가업을 이어받았으나, 세속적 생활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출가 하여 두타제일의 십대제자가 된 사람은?

① 사리뵤따 ② 아난다 ③ 마하목갈라나 ④ 마하갓사빠

해설: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의 두타행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훌륭하구나, 마하갓사빠, 만일 (두타행)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여래)를 비방하는 자이며, (두타행)을 찬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래)를 찬탄하는 자이다.”

—(부처님의 생애, 누더기 걸친 마하갓사빠, p.346)—

141. 마하갓사빠 비구와 관련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성도 후 27년째 되던 해, 왕사성에서 부처님을 처음 만났다.

② 두타행을 잘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③ 부처님께서 자신과 같은 수행 경지를 갖추었다고 칭찬했다.

④ 두타행을 지키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

해설: 왕사성이 아니고 사위성이다. 즉 왕사성 즉 마가다국의 수도가 아닌 꼬살라국의 수도 사위성에서 성도 후 27년째 된 해에 만났다. 마하가섭의 귀의는 마가다국의 왕사성 즉 라자가 하에서 사리뵤따와 마하목갈라나의 귀의에 이어진다. 성도 후 27년째 되는 사위성에서의 만남은 부처님의 생애, "누더기를 걸친 마하갓사빠"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마하갓사빠의 두타행을 칭찬하면서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앉게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선불교의 삼처전심 중 하나인 다자탑전 반분좌는 초기경전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선불교적

16) 다섯 비구 중 한 사람인 마하나마와 동명이인이 부처님의 조국인 까뵤라왕국의 왕 마하나마이다. 그는 석가족의 왕족들이 대거 출가함으로써 정반왕의 조카인 마하나마가 왕이 된다. 따라서 동명이인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으로 해석하여 이심전심(MIND-TO-MIND)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142.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낯고 해진 분소의를 입고 생활했으며, 진리를 체득하고도 깊고 험한 숲에서 선정을 닦고 결식을 하면서 수행에 전념했던 사람으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뒤에는 불교 교단을 통솔했던 이는 누구인지 쓰시오.

답: 마하깃사빠

143.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법이 가섭에게 전하여 진 것을 삼처전심이라고 한다.

삼처전심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답: 다자답전 반분좌, 염화시중 미소, 사라쌍수하 괘시쌍부

해설: 사리불과 목건련은 대중 앞에서 “부처님의 첫 번째 상속자 마하깃사빠에게 예배하십시오”라고 마하깃사빠의 지혜와 공덕을 칭찬하였다(부처님의 생애, 누더기 걸친 마하깃사빠, p.345)

144. 마가다국 왕사성에서 대부호집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나 가업을 이어 받았으나, 세속적 생활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출가하여 항상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없애고 엄격히 수행하여 두타 제일의 십대제자가 되었으며, 부처님 입멸 후 경전 결집과정에서 상수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① 가섭 ② 아난 ③ 우팔리 ④ 수보리

해설: 인명이나 지명이 한역된 명칭으로 나오더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145. 석가모니 부처님을 곁에서 시봉했던 최초의 시자 이름은 누구인가요?

① 아난다(P,S)) ② 안나따폰단냐(아즈나까까운디냐[S])

③ 목갈라나(마우드갈리야야나[S]) ④ 마하깃사파(마하까쉬야파[S])

해설: 올바른 문제가 아니다. 인명을 산스크리트어로 표기한 것도 조계종 공인 저서인 “부처님의 생애”가 빨리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도 상반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붓다는 성도 후 20년간 특정한 시자를 거느리지 않고 여러 제자들이 형편에 따라 시중을 들었다. 처음 20년간은 나가사말라(Namasamala) 등 8명이 시중을 들었으나 성도 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고정된 시자를 선발했으니, 그 사람이 아난다였다.

부처님의 시자에 관해서는 부처님의 생애, 제9장 첫 번째에 나오는 시자 아난다(p.312)를 보기 바란다.

146. 부처님의 시자(侍者)로서 가장 유명한 아난다와 관련된 사실이다. 옳바르지 않는 것은?

① 부처님께서 성도한 지 20년이 지나서 아난다는 시자가 되었다.

② 아난다는 자신이 먼저 시자가 되겠다고 간청하지는 않았다.

③ 아난다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다고 하였다.

④ 아난다는 부처님과 같은 방에서 거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 걸었다.

해설: 아난다가 조건부승인을 한 내용은 아래의 주석과 같다.¹⁷⁾

17) 아난이 시자가 되는 조건으로 내건 것은 부처님께서 보시 받은 옷을 아난에게 주지 말 것, 부처님 발우에 공양 받은 음식을 아난에게 주지 말 것,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방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지 말 것, 부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에 데리고 가지 말 것,

147.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같은 가문인 석가족 출신이 많은데, 다음 중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석가족 출신인 사람은?

① 다문제일 아난다 ② 신통제일 목건련 ③ 설법제일 부루나 ④ 지혜제일 사리불

해설: 부처님 십대제자 중 석가족 출신으로서 친척인 경우는 아난다와 아나울이다. 불전에 의하면 부처님을 배신한 데바닷타는 아난다의 형이라고 기술된 경우도 보인다.

148.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① 아난다 ② 마하카쉬야파(마하갓사빠) ③ 우팔리(우빨리) ④ 야사

149. 부처님의 십대제자인 아난다의 업적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부처님의 시자로서 25년 동안 열반에 들 때까지 보필한 일
- ② 여성의 출가를 세 번이나 간청하여 허락을 얻은 일
- ③ 불멸 후 경전편찬회의에서 경을 외운 일
- ④ 라훌라를 출가시켜 부처님의 뒤를 잇게 한 일

해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라훌라를 출가시키라는 말씀을 듣고(불본행집경 제55), 사리불이 출가를 시켜 라훌라는 최초의 사미(samanera)가 된다.

150.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께서 출가, 재가신도들을 모아 놓고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실 때, 부처님 앞에 앉아 졸다 꾸중을 듣고 자지 않고 수도 정진하다가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지혜의 눈을 얻어 천안통을 얻은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한 분은 누구인가?

답: 아니룻다

151.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 천안제일(天眼第一)로 불렸던 비구로서,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던 수행자의 이름은 누구인가요(괄호 안은 빨리어 표기)?

① 샤리푸트라(사리뽏따) ② 데바닷타(데와뽏따) ③ 아누룻다 ④ 숫도다나

152. 사위국 바라문족 출신으로 기원정사를 기증했던 급고독장자 수달(수뽏따[P.S]의 음역)의 동생인 수마나의 아들로 태어나 기원정사를 봉헌하는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했으며,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① 사리불 ② 수보리 ③ 아난다 ④ 아나울

153. 부처님께서 사왓티에 머무실 때에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아완띠국 백성들의 출가에 필요한 3사 7증, 즉 14명의 비구 숫자가 모자라서 쩡다뽏조따왕이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부처님께서 이를 고려하여 3사 2증만으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드셨다. 이 규정이 이루어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흑인이며 논리적 사유와 언변이 뛰어난

아난이 초대받은 자리에 부처님이 동행해 주실 것,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지 데려오도록 허락할 것,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허락할 것,
아난이 없는 자리에서하신 법문을 돌아왔을 때 다시 설해 주실 것.

제자는 누구인가?

① 뿐나 ② 갓짜나 ③ 난디야 ④ 아누룻다

해설: (1) 논의제일 가전연에 대한 문제이며, 그는 아완띠국 출신이다.

***뿐나(뿌르나[S]; 부루나[C]) / 갓짜나(=갓짜야나[P]; 까띠야야나[S]; 가전연[C])

(2) 꼬삼비 발생한 수행자들의 분쟁과 달리 쩌띠의 빠찌나암사야라는 곳에서 난디야와 아누룻다(천안제일)와 김빌라 세 분이 청정한 수행을 같이 잘 하므로 부처님께서서는 칭찬을 하셨다.

154. 노예 계급인 수드라 출신으로 부처님이 성도 후 카필라성에 돌아왔을 때 아난, 데바닷타, 아나울 등 석가족의 사촌형제들을 따라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불교단위 계급에서도 평등함을 몸으로 보여준 대표적 인물은 누구인가?

답: 우빨리(P,S); 우파리, 우발리(C)

154-1 Who is he?그는 누구인가?

He was originally a barber to the Sakya princes but held a higher rank within the sangha since he was ordained by the Buddha before the princes.

그는 원래 석가족 왕자들의 이발사였으나 왕자들의 출가 전에 먼저 승려가 되어서 왕자들보다 승가에서 서열이 더 높았다.

In the first council, it was Upali who played a leading role for the codification of the Vinaya-pitaka.

제1회 결집에서 율장의 편집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 Upali[P,S] (2) Kaccayana or Kaccana(Katyayana[S]) (3) Subhuti(P,S) (4) Punna(Pruna[S])

155. 밤낮으로 정진했음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출가수행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비구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 비구가 출가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일에 비유하여 올바른 수행 정진의 길을 깨우쳐주셨다.

흔히 거문고의 비유로 널리 알려졌으며 아함경에서 ‘이십억이(二十億耳)’라는 한역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비구는 누구인가?

① 순다리난다 ② 뿌라나갓사빠 ③ 소나꼴리위사 ④ 아나따뻘띠까

155-1 신족(神足) 제일로 유명했던 비구니의 이름을 고르세요.

① 웃빨라완나 ② 소마 ③ 난다 ④ 케마

해설: 케마는 빔비사라왕의 왕비 중 출가한 분이며, 경전에 의하면 지혜제일 비구니이다.

신족제일 혹은 신통제일로 불리는 비구니는 웃빨라완나 비구니이다.

비구니의 특수한 능력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석을 참고하기 바란다.¹⁸⁾

18) “비구들이여!

나의 여성문(女聲聞, sāvikā) 비구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린 이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Mahāpajāpatī Gotamī) 비구니요,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케마(Khemā) 비구니요,

초능력을 갖춘 이는 웃빨라완나(Uppalavannā) 비구니요,

계율에 능숙한 이는 빠따짜라(Patacāra) 비구니요,

156. 아들을 잃고 나서 미칠 지경에 이른 여인에게 부처님께서 “사람이 한 번도 죽어 나가지 않은 집을 찾아서 겨자씨를 한 줌 얻어오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겠다.”라는 설법을 하여, 지혜의 눈을 뜨게 했던 일화가 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인가?

① 끼사고타미(끄리사가우따미) ② 마야 부인 ③ 마리지 부인 ④ 키리마야

해설: 끼사고따미 비구니는 두타제일로 알려져 있다.

"나의 비구니 제자 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로는 제일인 사람은 끼사고따미이다"라고 부처님은 칭찬하셨다.

157. 부처님께서 슈로나(소나폴리위사: ‘이십억이’라고 한역) 비구에게 준 가르침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수행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해야 한다.

현을 너무 조이거나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진리의 길도 그와 같다.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너무 나태하지 않고 항상 (㉠)의 길을 걸으면 언젠가 이 속세의 (㉡)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① 중도 - 미혹 ② 염불 - 중생 ③ 염불 - 미망 ④ 중도 - 진흙

158. 브라만이었던 스승 마니바드라의 술수에 빠져서 살인을 저질렀으나, 부처님께 귀의한 비구의 이름을 고르세요.

① 데바닷타 ② 아난다 ③ 난다 ④ 앙굴리말라

159. 부처님 당시 인물 중에 앙굴리말라는 바라문 명문가의 아들이었지만 스승의 아내와의 악연으로 인해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목에 걸고 다녔다.

앙굴리말라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으로 사왓띠 사람들이 그를 부르던 별명으로 본래 이름은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라는 뜻을 지닌 앙굴리말라의 본래 이름은 무엇인가?

① 싯다르타 ② 아힘사카 ③ 아자따삿투 ④ 아나타뻘디까

159-1 Who is he?

1.His real name is Ahimsaka, which means one who does not hurt others.

그의 실명은 아힘사카이며 그 뜻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2.He fallen prey to¹⁹⁾ his teacher's plot and killed many people.

설법을 매우 잘한 이는 담마딘나(Dhammadinnā) 비구니요,

선정에 뛰어난 이는 난다(Nandā) 비구니이니라.

지칠 줄 모르고 정진한 이는 소나(Sonā) 비구니요,

투시력을 가진 이는 사쿨라(Sakulā) 비구니요,

속히 통달한 이[速通達]는 밧다 쿤달라께사(Bhaddā Kundalakesā) 비구니요,

과거의 생을 기억한 이는 밧다 까뻬라니(Bhaddā- kapilānī) 비구니요,

대신통력을 얻은 이는밧다 깟짜나(Bhaddā-kaccānā) 비구니요,

조잡한 가사를 두른 이는 끼사고따미(Kisāgotamī)비구니요,

믿음을 실현한 이는 시갈라마따(Sigālamātā) 비구니이니라.”

19) fall prey to ...: 의 간계에 빠지다

그는 그의 스승의 음모에 빠져 많은 사람을 죽였다.

3. The Buddha saved him and later led him to Arhathood.

붓다는 그를 구하고 나중에 그를 아라한에 이르도록 하였다.

(1) Angulimara (2) Devadatta (3) Ajatassatru (3) Bimbisara

160. 부처님의 초기 제자들은 일일이 규제하지 않아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출가생활의 기본 방침으로 4의지(依止)를 알려주셨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정사(精舍)에서 만든 음식에 의지하라. ② 분소의(糞掃衣)를 입는 생활에 의지하라.

③ 진기약(陳棄藥)을 사용하는 생활에 의지하라. ④ 나무 아래에서 좌선하는 생활에 의지하라.

해설: 4의지는 탁발, 분소의, 진기약, 수하좌이다. 부처님 당시에 정사가 생김으로써 일부 스님들은 정주생활을 하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탁발을 하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이다.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탁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대승불교권에서 탁발을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11. 까뻐라 왕국의 방문과 석가족의 출가

161.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올바른 것은?

① 숫도다나는 출가한 부처님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② 싯다르타의 절친한 친구였던 깔로다위(깔루다이)도 부처님을 다시 보지 못했다.

③ 마하카쉬야파(마하갓사빠)가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몹시 망설였다.

④ 부왕(父王) 숫도다나는 부처님에게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낸 적이 있다.

답: 숫도다나왕은 여러 번 사람을 보냈으나 모두 출가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릴 적 친구인 깔루다이를 보냈고 이 깔루다이가 출가를 하였지만 상황을 보아 부처님께 간청하여 가필라성의 방문이 이루어진다.

162. 부처님이 지혜를 얻은 뒤에 귀향하여 부왕(父王)과 친족을 만나서 해 주었던 핵심적인 설법 내용을 찾으세요.

① 보시, 지계, 생천 ② 인욕, 정진, 지계 ③ 인욕, 수행, 실천 ④ 보시, 수행, 지계

해설: 부처님 설법은 수준에 맞춰 이야기 해주시는 **대기설법**과 설법의 수준을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높여가는 설법인 **차제설법**이 있다. 이 이야기는 **차제설법**에 해당된다.

생천이라는 말은 보시를 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말이다.

163. 양모 마하빠자빠띠의 귀의 출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닌 것은?

① 마하빠자빠띠가 부처님께 손수 지은 금빛 가사를 바치면서 귀의를 청했다.

② 아난다가 여러 번 간청하여 비로소 비구니 승단이 생겼다.

③ 부처님은 마하빠자빠띠와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다.

④ 마하빠자빠띠와 함께 왔던 500명의 여자들이 비구니 교단의 시초였다.

164.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지 2년 만에 숫도다나왕은 부처님의 고향방문을 초청하는 사신을 보냈으나 여러 차례 실패하였는데,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친구의 지혜롭고 간절한 노력으로 마침내 부처님의 고향방문을 성사시켰던 인물은 누구인가?

- ① 찬나 ② 메기야 ③ 우다이 ④ 칼루다이

165. 부처님이 성도 후 고향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처음으로 향하여 하룻밤을 머무신 장소는 어디인가?

- ① 성 밖 니그로다숲 ② 숫도다나왕의 궁전
③ 태자시절 머물던 궁전 ④ 마야왕비가 머물던 궁전

166. 고향 까뻔라왓투를 방문하신 부처님을 맞이하였던 숫도다나왕의 행적과 맞지 않는 것은?

- ① 부처님과 제자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공양을 올렸다.
② 부처님을 야소다라비에게 직접 안내하여 만나도록 하였다.
③ 부처님을 처음 본 순간 환희심으로 엎드려 예배하고 공경하였다.
④ 부처님의 고향 방문 소식을 듣고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여 왕궁에서 기다렸다.

해설: 왕궁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으나 도착한 날은 부처님과 그 일행은 니그로다 숲으로 가서 머무셨다. 그 다음에 왕궁에 초대받아 공양을 받았다.

숫도다나왕은 처음 본 순간 불편한 심기였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원망과 분노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예배를 하였다.

167. 까뻔라왓투에서의 사흘째를 맞이하신 부처님께서 숫도다나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대관식과 결혼식을 앞둔 태자를 출가시키셨다.

양육모인 마하빠자빠띠가 낳은 부처님의 이복동생으로 부처님이 출가하신 후 태자의 자리를 지키다가 부처님의 고향 방문길에 출가한 이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

답: 난다

168. 불교 교단에서 아이가 출가를 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출가동의의 계율이 제정 되게 한 동기가 된 것은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출가시킨 데서 연유되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 ① 난다 ② 라훌라 ③ 아난다 ④ 아누룻다

해설: 부처님의 생애, 라훌라의 출가(P.204)에 보면 숫도다나왕(정반왕)이 라훌라마저 출가하자 탄식을 하면서 부처님에게 “나에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앞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는 아이는 출가시키지 말아다오”라고 간청하였다. 숫도다나왕(정반왕)이 돌아간 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부모의 허락 없이 소년을 출가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169. 고향 방문을 마치고 까뻔라왓투를 떠나 말리족이 사는 아누빠야의 망고동산에 머무실 때에 줄지어 출가한 삭카족의 여러 왕자들을 따라 함께 출가하여 훗날 부처님으로부터 승가의 규율을 제일 잘 알고 잘 지키는 비구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 ① 바구 ② 김빌라 ③ 우빨리 ④ 우빠난다

170. 부처님께서 아버지인 슷도다나왕의 죽음을 맞이하여 보이셨던 행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부왕의 장례식에 향로를 들고 다비장으로 가셨다.
- ② 부왕의 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친족들의 청을 사양하셨다.
- ③ 부왕의 시신에 꽃을 뿌려 공양하고 손수 장작에 불을 붙였다.
- ④ 부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왕궁으로 가서 보살피며 임종 설법을 하셨다.

해설: 부처님이 관을 드시고자 하셨으나 친족들이 만류 하였으며, 천신들이 들었다고 한다.

171. 아버지 슷도다나왕의 장례를 마친 뒤 부처님께서 양어머니이신 마하빠자빠띠를 교화하신 일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마하빠자빠띠가 직접 지은 황금빛 가사의 공양을 거절하시다가 세 번 거듭 청한 연후에야 받아주셨다.
- ② 마하빠자빠띠는 세 번이나 출가하겠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머리를 깎은 후 부처님께 찾아왔다.
- ③ 부처님을 찾아와 출가를 해달라는 마하빠자빠띠의 간청을 아난다가 부처님께 눈물로 세 번이나 거듭 전하였다.
- ④ 부처님은 비구니가 비구를 공경하는 여덟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마하빠자빠띠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해설: 부처님은 황금가사를 교단에 보시하라고 하셨다.

172. 부처님 당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행했던 의식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게 한다. ② 화려한 장식물로 몸을 단장한다.
- ③ 불·법·승 삼보에 귀의토록 한다. ④ 구족계(具足戒)를 받게 한다.

12. 교단의 계율

174. 수계(受戒)할 때에 계화상(戒和尚), 갈마사(磨師), 교수사(教授師), 세 사람과 덕이 높은 일곱 분의 스님을 뽑아서 증인(證人)으로 삼은 뒤에 계를 주고받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합당한 어구를 고르세요.

- ① 삼사칠증(三師七證) ② 삼칠사증(三七師證) ③ 삼상칠증(三尙七證) ④ 삼인칠인(三人七人)

해설: 아완띠국은 논의제일 가전연의 고국인데, 그 지역은 변방이라서 3사7증 즉 10명의 스님을 모시기가 어려워 3사2증 즉 5명의 스님으로 계율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완띠국은 토질을 고려해 두꺼운 신발을 허용하였다.

175. 불교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으려면 먼저 화상(和尚)을 선택해 평생 스승으로 모시는데, 화상이 곁에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제도는?

답: 아사리제도

176. 범계오쇠(犯戒五衰)라고 말하며, 계를 범한 이가 받는 다섯 가지의 쇠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① 재물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 ② 죽을 때 허둥대고 고통을 받는 것.

③ 평판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④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해설: 부처님의 생애 중 "강가강을 건너 웨살리로"에 보면 계율을 어기는 행실 나쁜 사람에게는 ① 재산이 줄어들고, ② 평판이 나빠지며, ③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④ 죽을 때 허둥대며 괴로워하고, ⑤ 죽은 다음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는 다섯 가지 손실을 말하고 있다.

177. 고대 인도에서 출가 수행자는 본래 신발을 신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교승단에서는 신발을 허락하게 되는데, 그 계기와 관련하여 올바르게 설명된 항목을 고르세요.

- ① 아난다의 발이 너무나 부드러웠던 일과 관련이 있다.
- ② 신발을 신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 ③ 참파국 출신의 슈로나 코티빔사카 비구의 일화이다.
- ④ 신발은 불소유(不所有)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사분율 제38권에 의하면 부처님은 부잣집 아들로 출가한 스로오나가 아라한과를 얻은 뒤 가죽신 착용을 허락한다. 부처님은 그에게 "너는 평생에 쾌락만을 익히고 고통은 겪지 않았으니, 절 안에서 한 겹의 가죽신을 신도록 허락한다"고 했다.

이에 스로오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허락하면 갖겠다"고 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몸과 옷과 방석을 보호하기위해 절 안에서는 한 겹의 가죽신을 신도록 허락한다"고 했다.²⁰⁾

178. 부처님께서 강조했던 올바른 수행 생활과 연관된 설명을 찾으세요.

- ① 조용히 혼자서 수행하여 지혜를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② 비구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화합이 중요하다.
- ③ 누구나 혼자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자립이 중요하다.
- ④ 자신이 지혜를 얻기보다 남이 먼저 지혜를 얻도록 도와야 한다.

179. 코삼비에 머물던 비구들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 부처님께서 직접 코삼비로 가서 중재하였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강조하던 비구들에게 건넨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 ① 계율 적용보다 화합이 먼저이다. ② 무엇보다도 정의가 중요하다.
- ③ 정의보다 원칙이 중요하다. ④ 원칙 적용보다 타협이 먼저이다.

180. 부처님은 코삼비의 비구들 중 계율을 가르치던 장로에게는 "계율의 적용에 앞서 교단의 화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고, 경전을 가르치던 장로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허물이라도 참회하지 않고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타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혼자서든지, 함께 모여서든지 수행 생활을 잘하는 비구에게는 아낌없이 칭찬을 하셨다. 그 칭찬을 받지 못한 비구의 이름을 고르세요.

- ① 아누룻다 ② 난디야 ③ 김빌라(깁빌라) ④ 데바닷타

20) 불교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는 것도 허락하였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 험한 지형이거나 개인이 허약한 상태 또는 병자인 경우에는 허락했다. 또한 사분율 38권에 보면 아습야반제라는 곳은 길이 너무 험하여 한 겹의 가죽신으로는 걸어다니기 힘들다고 하자 여러 겹의 신발을 허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석굴암에서는 제자들이 모두 신발을 신은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해설: 이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부처님 생애, 꼬삼비 분쟁 편의 p.284)이기는 하나 데바 닷타가 칭찬을 받은 기록이 없는 교단의 배신자이므로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다.

부처님의 생애, 꼬삼비 분쟁(P.281)을 보면 꼬삼비의 비구들이 사소한 일로 분쟁이 일어나 서로 주먹질하는 상황으로 치달자 부처님이 3번이나 권유하셔도 듣지 않자 부처님이 홀로 떠나셨다.²¹⁾

부처님은 쩌띠의 빠지나왓사다야 동산에서 아누룻다, 깬빌라, 난디야 3비구가 여법하게 화합하며 수행정진 하는 모습을 보시고 큰 소리로 칭찬하셨다.

13. 부처님의 포교와 설법

181. 사무량심에 대한 설명이다. 서로 들어맞지 않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 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 자무량심(慈無量心)
- ② 남의 고통을 없애 주려는 마음 : 비무량심(悲無量心)
- ③ 내카 기쁘게 살고자 하는 마음 : 희무량심(喜無量心)
- ④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 사무량심(捨無量心)

해설: 사무량심은 대승불교에서 주장된 것이 아니라 초기경전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방법으로서 강조되었으며, 사섭법과 함께 대승불교에서 중시하는 보살도와 유사하다.

자비희사는 차례대로 4선정에 각각 대응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예컨대, 자비관—, 이러한 수련에 의해 구체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사섭법이다.

자와 비는 한마디로 여락발고(與樂拔苦: 기쁨을 주고 슬픔을 덜어주는 것)라고 구사론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즉 기쁨을 주고 아픔을 제거해주는 것을 각각 자와 비라고 할 수 있다.

182.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은 희열을 얻고 적멸을 즐깁니다.

참다운 (㉡)야말로 훌륭한 보배이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소서.

- ① 부처님 - 승가 ② 가섭 - 제자 ③ 아난다 - 승가 ④ 사리불 - 제자

해설: 이 문제는 부처님의 생애, 웨살리의 재앙퇴치(p.232)에 나온 내용이다.

문제에 나오는 문장은 부처님께서 웨살리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칠일동안 깨끗한 물을 뿌리면서 하신 말씀 중에 포함된 내용이다. 부처님께서서는 브라만교와 같이 진언이나 주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183. 부처님께서서는 나간타 나따뽏따의 본향인 웨살리의 재앙을 퇴치하신 일에 감명을 받아 불교에 귀의하려는 시하 장군에게 개종을 신중히 생각하고 니간타의 지도자들에게도 평등하게 공양하라고 말씀하신바 있다.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 ①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을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 ② 상대방 종교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척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삼가 한다.
- ③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종교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포교해야 한다.

21) 꼬삼비 분쟁의 시작은 어느 장로가 화장실에 갔다가 쓰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계율을 가르치는 장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일어난 문제이다. 사소한 일이 두 장로의 제자들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견잡을 수 없도록 사태가 발전한 유명한 사건이다.

④ 이미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84. 아래 계송은 부처님께서 소치는 다니야에게 해 주셨던 것으로 유명하다.

팔호 속에 넣을 말로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한다.

()의 대상으로 인해 슬픔이 있으니()이 없으면 슬픔도 없다.

① 성냄 ② 기만 ③ 교만 ④ 집착

185. 부처님께서서는 나간타 나따뽏따의 본향인 웨살리의 재앙을 퇴치하신 일에 감명을 받아 불교에 귀의하려는 시하 장군에게 개종을 신중히 생각하고 니간타의 지도자들에게도 평등하게 공양하라고 말씀하신바 있다.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 ①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을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 종교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척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삼가 한다.
③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종교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포교해야 한다.
④ 이미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86. 어느 날 천신(天神)이 부처님께 행복의 비결을 물었다. 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슬기로운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 ② 분수에 맞게 살며 공덕을 쌓는 것.
③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 ④ 악행을 멀리하고 술을 먹지 않는 것

187.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돈을 잘 버는 것. ②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것.
③ 고통에서 해탈하는 것. ④ 고통을 피하고 조용히 사는 것.

188. 일반적으로 경전에서 부처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코끼리의 발자국 ② 거대한 바다 ③ 손가락을 잘라 만든 목걸이 ④ 하얀 연꽃

189. 열반을 성취하는 방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 ① 모든 감각 기관을 청정하게 하는 것. ② 나쁜 일을 하고 살더라도 절에 자주 가는 것.
③ 나쁜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선행에 힘쓰는 것. ④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다투지 않는 것.

190. 초기경전에서는 번뇌가 없으면 곧바로 ()의 경지를 얻는다고 하였다.

팔호에 들어가는 말을 고르세요.

- ① 아라한 ② 비구 ③ 비구니 ④ 사미니

191. 불교 교단 내에서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합당한 것은?

- ① 법랍 순서에 따라 위자리에 앉는 원칙이 있다.

- ② 법회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뒷자리에 앉는다.
- ③ 누구나 고정석이 있어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 ④ 먼저 앉은 사람이 예배를 먼저 받는다.

해설: 부처님의 생애 중 "왕자들의 출가"에서 새롭게 출가한 우빨리와 왕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보면 된다.

"우리 승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며, 평등한 그들에게는 올바른 법과 율이라는 한 맛이 있을 뿐이다. 명심하라. 계를 받은 순서에 따라 예를 다할 뿐 신분과 귀천의 차별은 여기에 없다"

192. 부처님의 당부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의 삶을 선택한 까닭은 오직 하나이다.

길고 긴 (㉡)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이 목적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

- ① 범천 - 탐욕 ② 범천 - 윤회 ③ 출가자 - 윤회 ④ 출가자 - 고행

해설: 부처님의 생애 중 "시체를 태우는 막대기들"(p.349)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부처님은 위의 말씀에 이어서 "비구들이여, 명심하라. 출가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출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간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다르지 않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키우고, 출가자의 법도를 배우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지 않고, 태도를 잘 다스리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재가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도 놓치고, 출가자가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놓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193. 로히니 강을 사이에 두고 사까족과 쾰리야족의 물싸움이 벌어졌을 때 부처님께서 행하신 교화 행적과 관련된 일들을 잘못 기술한 것은?

- ① 대치하던 두 종족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화해하고 불법을 널리 믿게 되었다.
- ② 사까족과 쾰리야족은 먼 조상 때부터 오래도록 전쟁을 치르면서 원한이 깊은 관계였다.
- ③ 처음엔 논에서 농부들끼리 물싸움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려는 분위기로 치달았다.
- ④ 이 일로 두 종족은 각각 이백오십 명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시중을 들게 했는데, 오백명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해설: 사까족과 쾰리야족은 같은 옥까까왕의 후손으로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4. 나라와 조직을 강성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 ① 회의를 자주하라. ② 능력 있는 이를 받들고 따르라.
- ③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말라. ④ 출가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라.

해설: 부처님의 생애 중 "파멸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²²⁾

-
- 22) ① 회의를 자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
 - ② 위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것,
 - ③ 앞사람들이 정한 규칙과 법률을 깨뜨리지 않고 중시하며 함부로 고치지 않는 것,
 - ④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면 순종하는 것,
 - ⑤ 남녀가 고유의 의무를 수행하며 여인들은 행실과 덕행이 참 되고 남자들은 강압적으로 이끌거나 약탈

195. 다음은 의 ‘안수정등도(岸樹井藤圖)’에 나오는 인생에 대한 비유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어떤 사람이 벌판을 걷다가 성난 코끼리한 마리를 만났다. 크게 놀라 달아나다 다행히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안으로 뛰어 내려간 침녕쿨을 붙잡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작은 뱀들이 사방에서 햇바닥을 날름거리고 있고, 또 밑바닥에는 무서운 독사가 노려보고 있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그는 침녕쿨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서 침녕쿨을 갉아먹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때였다. 어디에선가 다섯 마리의 꿀벌들이 날아와 침녕쿨에 집을 이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갔다.”²³⁾

- ① 코끼리는 나쁜 친구, 침녕쿨은 생명줄을 의미한다.
 - ② 작은 뱀과 독사는 잦은 병과 죽음을 의미한다.
 - ③ 검은 쥐와 흰 쥐는 밤과 낮을 의미한다.
 - ④ 다섯 마리의 꿀벌은 인간의 오욕락(五慾樂)을 의미한다.
- 답: 코끼리는 무상한 세월을 의미한다.

196. 탐, 진, 치, 삼독(三毒)에 대한 부처님의 교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 ① 탐욕은 보시로 없애야 한다. ② 삼독은 저절로 사라지는 번뇌일 따름이다.
- ③ 분노는 인욕하면서 억제해야 한다. ④ 무지는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없애 나간다.

197.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설법 단계에서 특히 재가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셋을 쌍으로 모았다. 그것에 합치하는 항목을 고르세요.

- ① 보시(布施), 인욕(忍辱), 정진(精進) ② 보시, 인욕, 생천(生天)
- ③ 인욕, 지계(持戒), 정진 ④ 보시, 지계, 생천

해설: 부처님은 대상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는 대기설법을 주로 하시지만, 대중을 상대로 설법하실 때는 순서에 따라 하는 설법인 차제설법을 하셨다.

차제설법에는 보시, 지계, 생천(천당에 태어남)을 주로 말씀하셨다.

14. 계율과 수행

198. 불교 승단에 계율을 제정하게 된 배경 설명이다. 가장 합당한 것을 고르세요.

- 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었다.
- ② 선한 업보에 대한 상찬(賞讚)에 본래 목적이 있다.
- ③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 ④ 재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부처님의 배려였다.

199. 출가자의 행위를 교정하며 그의 사범(師範)이 되어서 지도해 주는 스님을 가리켜 부르는

하지 않는 것,

- ⑥ 종묘를 받들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
- ⑦ 도와 덕을 숭상하고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가 찾아오면 후하게 맞이하는 것.

23) 안수정등도에 대한 이야기는 불설비유경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꼬살라국의 빠세나디(파사익이라고 음역)왕에게 부처님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명칭은 무엇인가요?

① 아사리(阿闍梨) ② 우파디야야 ③ 학두(學頭) ④ 학자(學者)

해설: 현재 조계종에도 이 제도가 있어 교수아사리라고 불리 운다.

200. 석가모니불의 제자들 가운데서 지계 제일로 곱히는 수행자의 이름을 고르세요.

① 아난다 ② 우팔리 ③ 수파리 ④ 카쉬야파

201. 안거(安居) 마지막 날 안거를 함께한 이들이 모두 모여 그동안 보고 듣고 의심한 허물들에 대해 토로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이르는 말은?

답: 자자

해설: 교단의 유지를 위해 계율의 점검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포살과 자자이다. 안거와 상관없이 보름마다 즉 초하루와 보름 때 하는 것은 포살이고, 안거 끝에 하는 것은 자자이다.

202. 불교교단의 안거가 끝나는 날에 수행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대중들이 순서대로 모두 평등하게 돌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드러내 참회하는 의식을 자자(自恣)라고 하는데, 이 자자에서 고백과 참회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일 즉, 3사(三事)는 무엇인가?

① 견(見), 문(聞), 의(疑) ② 문(聞), 사(思), 수(修)

③ 신(身), 구(口), 의(意) ④ 언(言), 행(行), 심(心)

해설: 자자는 순서대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대중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잘못된 점이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하고 세 번 말하고 없으면 끝이 나는데 이 때에 말하는 것은 "계율에 어긋난 행동을 본 것(見), 계율에 어긋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聞), 계율에 어긋났다고 의심이 드는 것(疑)에 대하여 말한다.

203. 부처님 말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처님께서서는 자신의 사후, 교단의 미래에 대해서 몹시 걱정했다.

② 데바닷타가 부처님을 배반 하였다.

③ 아자따삿뚜(아자따샤뜨루) 왕은 부왕 빔비사라 왕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다.

④ 최후의 공양을 바친 사람은 대장장이 춘다였다.

해설: 부처님의 생애 중 "등불은 꺼지고"장을 보면 "아난다, 내가 멸도한 뒤 너를 보호해줄 이가 없을 것이라 걱정하는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 내가 설하고 제정한 법과 율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떠난 뒤에는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다."

15. 부처님의 열반과 결집

204.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던 최후의 장소로 알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① 쿠쉬나가라(꾸시나라) ② 룸비니 ③ 와라나시 ④ 붓다가야(지금의 보드가야)

205.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난 뒤에 승단의 구성원들이 의지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① 자신과 타인 ② 자신과 동료 ③ 진리와 계율 ④ 진리와 가족

206.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자가 스승으로 삼아 지켜야 한 실천덕목인 5계를 쓰시오.

답: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207. 다음 보기의 내용은 부처님이 어느 때에 설하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라. …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 ① 성도하신 직후에 ② 녹야원의 초전법륜에서
③ 제자들에게 전도를 선언할 때 ④ 사라쌍수에서 열반에 드실 때

208.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난 뒤에 결집이 이루어졌고, 그때 경장과 율장을 암송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두 비구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 ① 마하깟사빠 - 도나 ② 아난다 - 우빨리 ③ 도나 - 아난다 ④ 우빨리 - 마하깟사빠

해설: 율장과 경장 중에 교단의 유지 차원에서 율장이 먼저 결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록이지만(부처님의 생애, 인류의 영원한 스승, p.412) 경장이 먼저 결집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209.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가섭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비탄에 잠겨 있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섭은 ‘서둘러 부처님의 교법과 계율을 결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비법과 비율을 말하는 자가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전 결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부처님의 교법과 계율을 결집하는데 큰 공헌을 남긴 부처님의 십대제자가 바르게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 ① 아난다-라훌라 ② 아난다-우빨리 ③ 사리불-우빨리 ④ 사리불-라훌라

해설: 지문에 중요한 내용이 빠진 문제이다. 부처님 열반 후에 부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니 환호성을 지르는 비구를 보고 가섭존자는 불법이 잘 유지되고 존속되도록 교법과 계율을 결집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

210. 부처님께서 마하깟사빠(마하카쉬야파(S))에게 해 주신 말씀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를 보는 바른 안목과 (㉡)의 오묘한 마음을 그대에게 부촉하나니, 그대는 잘 보호하며 널리 전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

- ① 법 - 중생 ② 진리 - 열반 ③ 진리 - 중생 ④ 법 - 알라야-

해설: 부처님의 생애 중 “파멸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p.373)—염화시중의 미소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의발과 가사를 전하는데, 초기경전에 가섭은 열반에 들지 않고 계족산에서 미륵이 올 때까지 가사와 발우를 전하기 위해 계신다고 잡아함경 44권 10불선품, 유부율잡사, 대비바사론, 대지도론에 기록하고 있다.

211.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일체경, 삼장경, 장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삼장이란 무엇인가?

답: 경.율.론

212. 우리나라 국보 제32호이며, 유네스코에서 200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것은 무엇인가?

답: 해인사 대장경판

해설: 해인사 대장경판은 국보32호이나 유네스코 등록은 2007년이며,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에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

213. 다음은 금강경의 첫 부분이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如是我聞 一時佛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 千二百五十人俱

- ①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 ② 어떤 사람이 들었는가의 설법 대상을 밝히고 있다.
- ③ 설법을 듣는 이의 공덕을 밝히고 있다.
- ④ 설법의 시기와 장소를 밝히고 있다.

해설: 청중의 공덕은 경전의 마지막 부분인 유통분에서 수지독송하면 그 공덕이 크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14. 경장(Suuta-pitaka)과 율장(vinaya-pitaka), 논장(abhidharma-pitaka)은 삼대 불교 경장으로 꼽힌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① 경장은 원칙적으로 고정불변을 기본으로 삼는다.
- ② 경장, 논장과 달리 율장은 고정불변이 그 특징이다.
- ③ 논장은 경장과 율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담는다.
- ④ 논장의 분량이나 내용은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해설: 경장과 율장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고정불변의 특징이 있다.

단 율에 관해서 소소한 계율을 버리라고 했으나 가섭의 주장대로 고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승불교권에서는 오후불식이나 탁발의 사실상 폐지와 같은 경우 율장의 부분적 사문화가 있더라도 율장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한편 논장은 경이나 율에 대한 해설서나 논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